

신앙 개혁 운동을 위한 비대면 영성훈련 연구
: 매일기도학교를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배석현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4년 5월

Copyright © 2024 Sukhyun Bae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RESEARCH ON UNTACT SPIRITUAL TRAINING FOR FAITH REFORM MOVEMENT : A CASE STUDY OF DAILY PRAYER SCHOOL

Sukhyun Bae

Seoul, Korea

This study seeks for the revival of South Korean church on the verge of perishing. While searching for ways to embrace young believers who are deserting their faith at a rate faster than the South Korean population decline expected for the upcoming 40 years, we claim that a contemporary “Faith Reformation Movement” inspired by the religious reformation of the medieval era is necessary.

The “Faith Reformation Movement” involved the translation of the Latin Bible into common language during the medieval era, the reinterpretation of the Bible focusing on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by faith’ and the eradication of erroneous interpretations of the Bible spread by high-ranking clergy of the Vatican. This allowed the ordinary believers to live a more voluntary religious life, which was the main driving force of the reformation. Like the past reformation movement, “Faith Reformation Movement” for the current era refers to a movement that trains ordinary believers to voluntarily interpret the Bible, involves daily prayer, and allows them to properly practice faith with truth without being

misled by incorrect interpretations of the word of God.

To this end, this study introduces the “Daily Prayer School,” developed as a part of the “Faith Reformation Movement”. “Daily Prayer School” is an online program that trains people to pray in their daily lives. The program is based on the “Lord's Prayer” and actively utilizes Bible study materials, online video lectures, prayer training video sessions, and Google classroom questionnaires.

It is hoped that this paper can be used to encourage proper personal religious life among the ordinary believers.

국문초록

신앙 개혁 운동을 위한 비대면 영성훈련 연구

매일기도학교를 중심으로

배 석 현

서울, 한국

본 연구는 쇠락해가는 한국교회의 재도약을 모색하려는 시도이다. 향후 40년 후 급격히 줄게 될 대한민국 인구의 감소 보다 더 빨리 교회를 떠나고 있는 젊은 성도들을 끌어안고 방안을 모색하면서 중세시대 종교개혁에서 영감을 얻어 현 시대의 “신앙 개혁 운동”이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했다.

“신앙 개혁 운동”이란, 중세 시대, 라틴어 성경을 일반 언어로 번역하고, ‘이신칭의’ 교리를 중심으로 성경을 재해석하여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고위 성직자들에 의해 전파된 잘못된 성경해석을 근절하여, 일반 성도들이 보다 자발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여 이 운동력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현 시대에도 일반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스스로 매일 기도하여, 잘못된 말씀해석에 호도되지 않고, 보다 진리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신앙 개혁 운동” 일환으로 개발한 “매일기도학교”를 본 논문에서 소개했다. “매일기도학교”는 온라인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훈련하는 프로그램이다. 내용의 기반은 “주기도문”이며, 성경공부 교제와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동영상 강의, 기도훈련을 위한 동영상, 구글클래스룸을 통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본 논문이 일반 성도들의 올바른 개인신앙생활 고취를 위해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감사의 글	x
I. 서론	1
A. 연구의 목적	1
B. 연구의 방법과 범위	7
II. 코로나 19 이후 드러난 신앙의 위기와 해결 방안	9
A. 코로나19 이후 교회의 위기와 원인	9
1. 코로나19 이후 교회의 위기	9
2. 코로나19 이후 교회 위기의 원인	13
B.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를 통하여 본 현재 교회의 위기와 원인	14
1. 중세 교회의 타락과 종교개혁	14
2. 현재 한국 교회의 위기와 원인	17
III. “신앙개혁 운동” 방법론	28
IV. 신앙개혁 운동을 위한 비대면 기도 훈련의 실제	33
A. 비대면 신앙교회의 필요성과 가능성	33
1. 구술문화 시대에서 디지털 문화시대로의 변화와 디지털 스토리텔링	33
2.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신앙 생활 공간으로서의 ‘가정’의 중요성	35
3. 비대면 모임의 특성	37
4. 비대면 기도 운동의 필요성	41
5. 비대면 기도 운동의 유의사항	43
B. 비대면 기도 훈련을 통한 신앙개혁의 실제	47
1. 매일기도학교 개요	47

2. 매일기도학교 주차별 내용, 필수 공지사항 및 강의내용 요약	53
3. 매일기도학교 비대면 연합 기도회 인도시 유의사항	84
4. 매일기도학교 참가자 설문조사	86
V. 결론	98
A. 결론 및 요약	98
B. 제언	103
참고문헌	104

표목차

<표 1>	1
<표 2>	3
<표 3>	4
<표 4>	5
<표 5>	6
<표 6>	10
<표 7>	11
<표 8>	12
<표 9>	13
<표 10>	22
<표 11>	23
<표 12>	24
<표 13>	25
<표 14>	26
<표 15>	32
<표 16>	34
<표 17>	39
<표 18>	98
<표 19>	99

그림목차

<그림 1>	44
<그림 2>	45
<그림 3>	46
<그림 4>	49
<그림 5>	52
<그림 6>	55
<그림 7>	56
<그림 8>	59
<그림 9>	60
<그림 10>	61
<그림 11>	72
<그림 12>	73
<그림 13>	91

감사의 글

Drew University를 만나게 된 것은 제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Lenord Sweet 박사님, 조병호 박사님, 김영래 박사님의 탁월한 강의를 들으며 많은 영감과 용기, 생각의 깊이와 학문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 Drew University 모든 관계자분들과 Lenord Sweet 박사님, 조병호 박사님, 김영래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본 교회 모든 장로님들(김종성, 김충구, 방연주, 김인하, 김길중, 장영호, 박길동, 임창규, 장세걸, 최진웅, 김영철, 서동배, 박영록, 이욱범, 김우식, 이현진, 김종열, 이광채, 조영현)과 부교역자들(부목사:이호영, 송병근, 최민혁, 박성철, 우경일, 강성균, 신동혁, 전임전도사:곽재호, 교육목사:김희철, 송민호, 박은숙, 이연화, 정빙화, 김라경, 심상익, 준전임·교육전도사:박재성, 유요한) 특별히 이승현 담임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부족함에도 늘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서교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우영수 목사님과 이송죽 사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못난 아들 사랑해주시고, 위해 기도해주시는 어머니님 김점수 권사님과 하나밖에 없는 형님 배대현 집사님과 형보다 나은 동생 배준현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하늘나라 가신 아버지 배이춘 안수집사님께 깊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버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이 논문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사랑하는 아내 박성희 사모와 사랑하는 딸 주하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2024년 2월

배 석 현

I. 서론

A. 연구의 목적

2019년 12월 중국 우환에서 시작된 팬데믹(Pandemic) 사태는 약 3년가량 전 세계를 휩쓸었다. 거의 대부분의 대면 모임이 금지되었고, 모든 필수적인 회의와 만남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미국 바나 그룹(Barna Group)의 ‘2020 교회 현황(State of the Church)’에 따르면, 미국 내 자기 신앙이 삶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매주 주일 교회를 출석하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조사 대상 중 32%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다녔던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단 35%만이 ‘코로나19 이전부터 출석하던 교회를 여전히 출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¹

< 표 1 > 코로나19 전 매주 교회 출석하던 기독교인의 코로나19 기간 중 교회 출석



¹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 통계,” 「 목회데이터연구소 」, 58 (2020),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haeoe&wr_id=17 [2023.9.14 최종 접속]

한국의 상황은 미국의 상황보다 더 심각했다. 한국일보는 2020년 2월 27일 보도에서 한국기독교언론포럼에서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한국의 18~69세 남녀 개신교 교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한국교회 교인 중 57%가 코로나19로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²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 30일에 선포했던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2023년 5월 5일에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2023년 현재, 장장 3년 4개월 간의 팬데믹(Pandemic) 상황이 종료된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이제 마스크를 쓴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고, 대부분 코로나19 이전 일상생활로 회복된 듯하다.

처음 2020년, 2021년 코로나19가 전세계를 휩쓸었을 때, 전문가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코로나19 이전의 삶의 방식은 불가능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 팬데믹(Pandemic)이 다 끝난 상황을 보니 그들의 예상은 현실이 되지 않았다. 세계는 이제 코로나19 이전으로 거의 회복된 듯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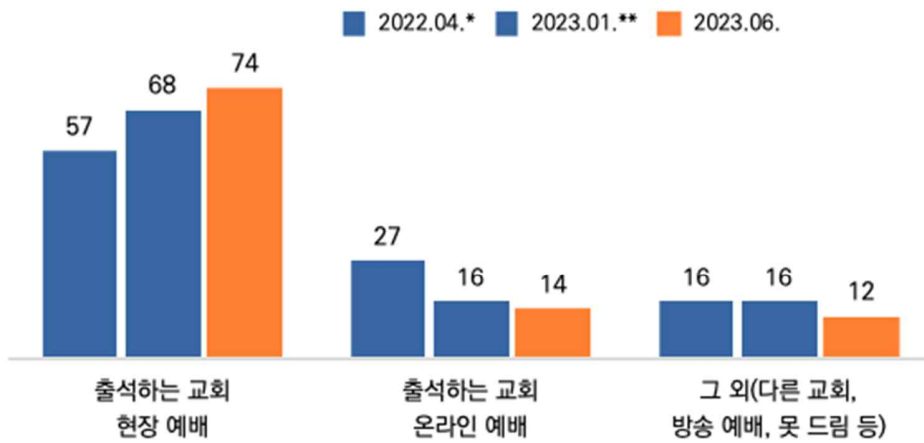
그렇다고 코로나19 이후의 우리 일상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되돌아 간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달라졌다. 일례로 온라인 모임, 재택근무는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대면 모임도 익숙하지만, 현재, 비대면 모임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 이런 사실은 현재 한국교회 상황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최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2023년 6월, 여전히 14%의

² “코로나19 여파 개신교인 57% 교회 출석 안해”, 「한국일보」, 2020년 2월 27일, <[https://www.seoul.co.kr/\[2023.9.14 최종 확인\]](https://www.seoul.co.kr/[2023.9.14 최종 확인])>

성도들이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한달에 한번 이상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응답한 응답자 수가 37%에 달한다.³

< 표 2 > 지난 주일예배 드린 형태 (교회 출석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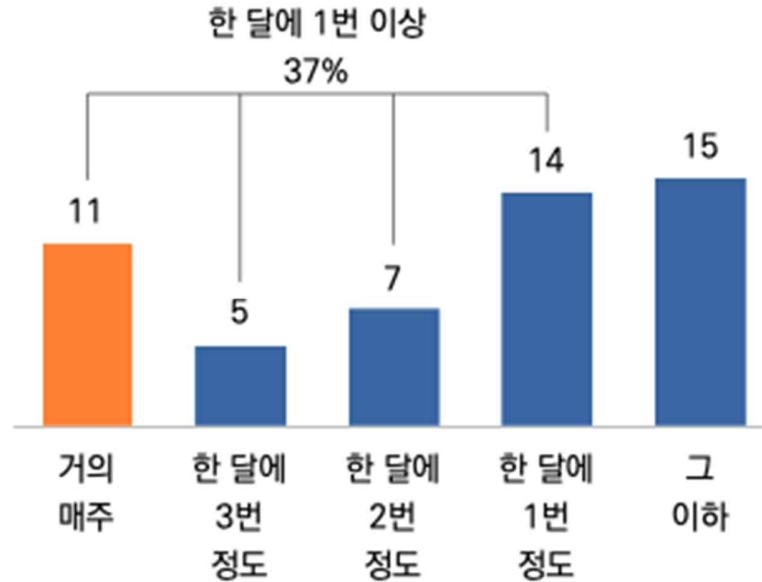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예정통합/기아대책/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추적조사 개신교인 4차 조사, 2022.05. (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500명(교회출석자 1197명), 온라인 조사, 2022.04.15~25.)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2023.06. (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3.01.09~16.)

³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 통계,” 「 목회데이터연구소 」, 197 (2023),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90 [2023.9.20 최종 접속]

< 표 3 > 온라인으로 주일예배 드리는 빈도 (2023년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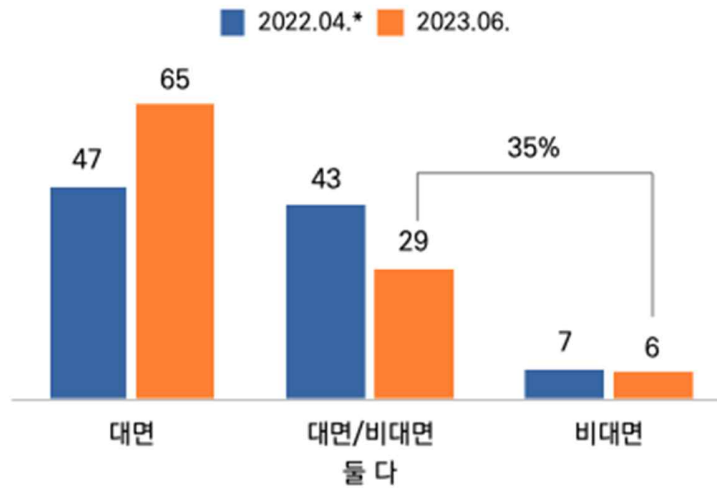


이는 코로나19가 끝났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보편화된 온라인 예배가 코로나19 이후에도 그 비율이 크게 줄지 않고 여전히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중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이 무엇이나?” 라는 질문에 “둘 다” 혹은 “비대면”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에 달했다. 이는 주일 예배를 꼭 대면 예배로만 드리지 않고, 필요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도 드릴 수 있다고 응답한 숫자가 개신교인의 1/3 이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⁴

⁴ Ibid.

< 표 4 > 나에게 적합한 예배 유형 (출석 개신교인, %)

[그림] 나에게 적합한 예배 유형** (출석 개신교인, %)



*자료 출처 : 예장통합/기야대책/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추적조사 개신교인 4차 조사, 2022.05.
(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500명(교회출석자 1197명), 온라인 조사, 2022.04.1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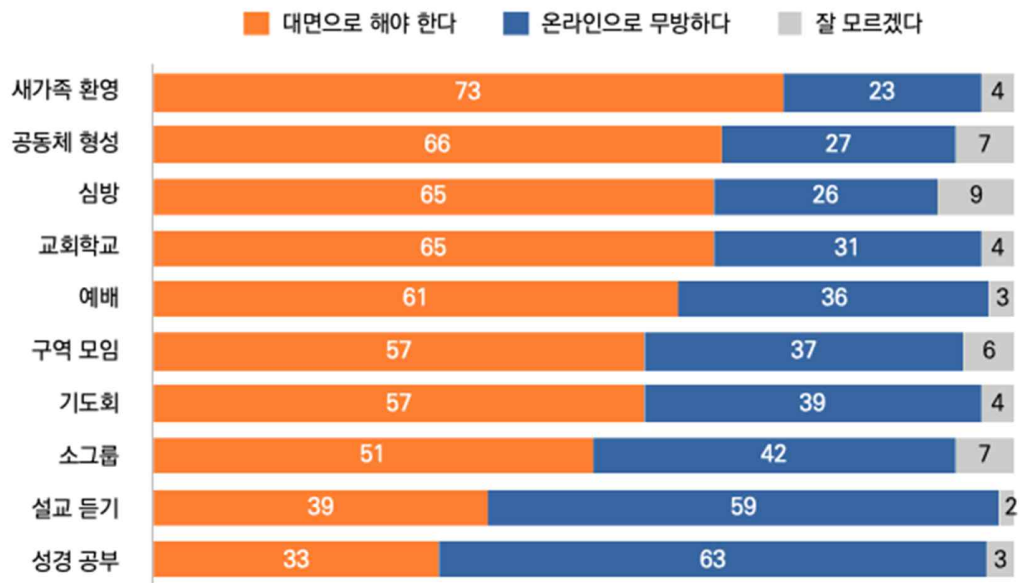
**잘 모르겠다 등 기타 응답은 제시하지 않음

또 교회 여러 활동들 중 새가족 환영, 공동체 형성, 심방, 교회학교, 예배, 구역 모임, 기도회, 소그룹활동, 설교 듣기, 성경공부 등의 활동들에 대해 비대면 모임과 대면 모임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하겠느냐는 질문에서 최소 23% 이상이 비대면 모임이 적합하다고 응답했고, 특별히 설교 듣기(비대면 59%, 대면 39%)와 성경공부(비대면 63%, 대면 33%)는 비대면 모임이 더 적합하다는 응답이 대면 모임이 적합하다는 응답에 비해 20%~30% 높았다.⁵

⁵ Ibid.

< 표 5 > 교회 사역의 대면 vs 온라인 적합성

[그림] 교회 사역의 대면 vs 온라인 적합성 (%)



코로나19로 교회의 모든 대면 예배와 모임이 중지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혹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의 사막에 혼자 덩그러니 고립된 것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교인들은 예배 없는 주일에 곧 익숙해졌다. 이를 통해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에는 한 주도 빠짐없이 주일예배를 출석했고, 교회에서 여러 봉사와 신앙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성도들이 코로나19 상황을 통해 자신들이 그 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이 코로나19 시기를 보내면서 자신이 이 모든 활동에 대해 충분히 뜨겁거나, 열정적이거나, 하나님께 대해 충분히 헌신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코로나19를 지나온 모든 성도들은 꼭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혼자 집에 있을

때에도 충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지금보다도 더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이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점점 익숙해지고 또 훨씬 편해졌고, 예배를 드리던 시간은 곧 다른 스케줄들로 가득 채워졌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19가 세계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던진 숙제이다.

정리하자면, 주로 대면 모임을 통해 이루어졌던 신앙생활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모임을 병행하는 형태로 변화되었고, 코로나19 이전부터 해왔듯이,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이 각자의 삶의 자리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B. 연구의 방법과 범위

연구는 먼저 코로나19 기간을 통해 드러난 현재 한국교회에 팽배한 외식적이고 불완전한 신앙생활의 행태를 중세시대 교회의 타락에 비추어 살펴 볼 것이다. 이어서 중세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어난 종교개혁의 역사를 토대로 현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극복해야 할 사안들을 생각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김영래와 조병호, 레너드 스위트(Lenoard Sweet)의 저서를 참고하고, 이와 더불어 성경과 여러 단행본, 연구논문, 간행물 그리고 기타 여러 인터넷 자료를 참고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비대면 교육을 대면 교육과 비교하여 차이점과 장단점을 서술할 것이다. 서문에서도 이미 살펴보았듯이 코로나19 이후 이미 비대면

신앙활동은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의 신앙과 교회에서의 신앙은 별개가 아니며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하고,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보다 교회 밖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의 신앙생활이 더 강력하고 바람직해야 한다.

이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보다 더 바람직하고 적극적이며 진실하고 강력한 신앙생활을 훈련하는 방법으로 각자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비대면 교육이 삶의 자리를 떠나 교회에서 진행되는 대면 영성 교육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역설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자가 목회하고 있는 장석교회 청년부에서 연구자가 직접 개발하여 진행하고 있는 “매일기도학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미 이 과정을 수료한 참가자들의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비대면 기도훈련을 통해 기도가 얼마나 삶에 뿌리내릴 수 있는지 탐구할 것이다.

II. 코로나19 이후 드러난 신앙의 위기와 해결방안

-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를 중심으로

A. 코로나19 이후 교회의 위기와 원인

1. 코로나19 이후 교회의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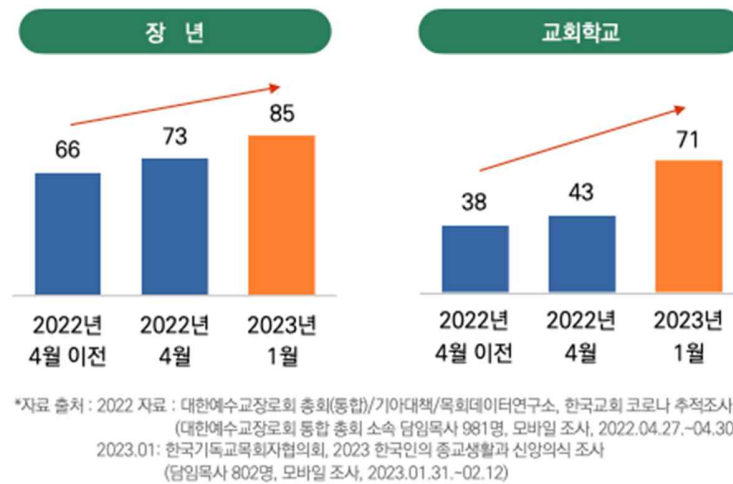
서문에서도 인용했던 한국일보 2020년 2월 27일 보도에 의하면, 한국교회 교인 중 57%가 코로나19 기간동안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다.⁶ 이는 몇몇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났다고 할 수 있는 2023년 9월 현 상황에도 한국 교회의 주일 예배 출석수는 장년은 85%, 교회학교는 71%만이 겨우 회복되었을 뿐이다.⁷

⁶ “코로나19 여파 개신교인 57% 교회 출석 안해”, <[https://www.seoul.co.kr/\[2023.9.14 최종확인\]](https://www.seoul.co.kr/[2023.9.14 최종확인])>

⁷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 통계,”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81 [2023.9.14 최종 접속]

< 표 6 > 코로나 이전 대비 장년/교회학교 현장예배 참석률 (평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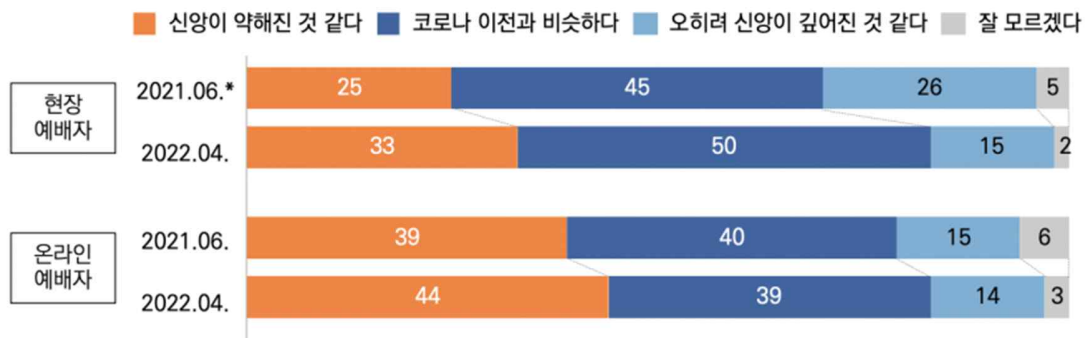


연구자는 코로나19 기간 3년(2020년~2022년)을 지내며, 대면 예배와 대면 사역이 일시 정지된 상황과 더불어 이 팬데믹(Pandemic) 환경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막연한 상황 속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밤을 지새는 날이 많았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과 신앙에 대한 여러 대화를 나누었다. 연구자는 팬데믹(Pandemic) 상황의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기타 여러 신앙생활에 많은 목마름과 갈급함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갈망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오히려 주일예배와 여러 교회 대면 모임들이 없는, 다시 말해, 신앙생활 없는 삶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성도들이 이런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여러 기관의 조사 지표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2년 5월에 발표한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코로나 추적조사(4차)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 중에 신앙이 약해졌다는 비율이 대면 예배자, 비대면 예배자 구분없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⁸

< 표 7 > 코로나19 이전 대비 신앙수준 변화 (개신교인 전체, 예배유형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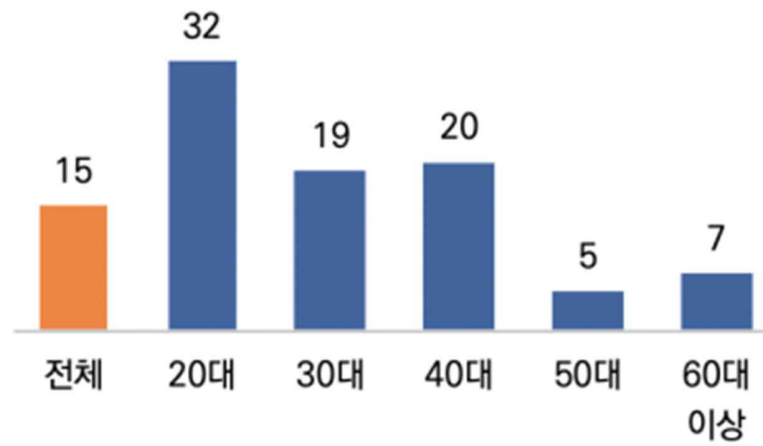
*2021.06. : 예장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사)한국기독교언론포럼,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보고서, 2021.07.20.(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21.06.17.-06.28)

또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그 동안 한국 교회 성도들의 마음 속에 잠식되고 축적되어 오던 교회에 대한 실망과 환멸이 수면위로 올라와 폭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젊을수록 더 강력하게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2022년 11월에 발표한 “기독교 통계(166호)”에 따르면 응답한 교인 중 15%가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연령별 응답 비율을 보면 20대가 32%, 30대가 19%, 40대가 20%로 집계됐다. 5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5%, 7%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 교회 20대, 30대, 40대 성도들의 교회에 대한 불만은 심각한 정도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⁹

⁸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 통계,” 「 목회데이터연구소 」, 182 (2023),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81 [2023.9.14 최종 접속]

⁹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 통계,” 「 목회데이터연구소 」, 166 (2022),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69 [2023.9.14 최종 접속]

< 표 8 > 기독교 신앙을 버릴 생각 ‘있다’ 비율 (연령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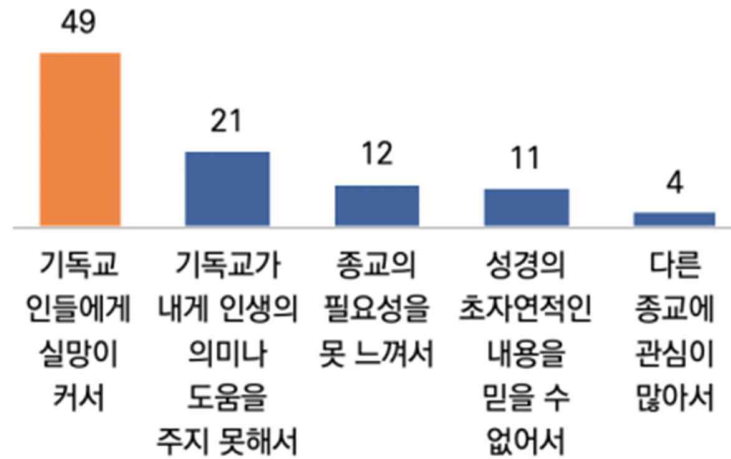


*4점 척도 질문으로 '생각한 적 있다'(자주+가끔) 비율임

그리고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한 이유를 보면 ‘기독교인들에게 실망이 커서’ (49%), ‘기독교가 내게 인생의 의미나 도움을 주지 못해서’ (21%), ‘종교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12%), ‘성경의 초자연적인 내용을 믿을 수 없어서’ (11%), ‘다른 종교에 관심이 많아서’ (4%) 순이었다.¹⁰

¹⁰ Ibid.

< 표 9 > 신앙을 버릴 생각을 한 이유(%)



2. 코로나19 이후 교회 위기의 원인 - 교회와 성도 두 측면에서

위의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현 한국교회의 문제의 원인을 교회의 문제와 성도의 문제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해 볼 수 있다.

(1) 교회의 문제

첫째, 교회의 모든 사역이 “교회의 양적 성장”이라는 아젠다(agenda)에 매몰되어 이상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로 나아가는 모습을 심각하게 상실했다. 이는 교회의 신뢰성 하락과 교회론의 혼란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인 행복, 삶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기 보다 성도들을 교회의 양적성장을 위한 도구로 삼아왔다. 이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사랑받고

존중받는다는 인식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고, 교회생활 속에서 느끼는 행복감을 반감시키는 작용을 해왔다. 셋째, 교회는 교회의 양적성장에만 집중한 나머지, 성도의 영적훈련과 양육에 실패하여 성도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가장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실패했다.

(2) 성도의 문제

현재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 교회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첫째, 현재 많은 성도들은 과도한 경쟁체제, 실업률 증가, 물가 상승 등으로 미래가 불확실해지자 각자의 삶의 시간적 여유가 줄어들게 되어, 교회 활동에 소극적이다. 둘째, “삶의 안정(직장, 결혼 등)”이 성도들의 삶에 가장 시급한 일이 되어 신앙생활은 상대적으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 믿음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B.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를 통하여 본 현재 교회의 위기와 원인

1. 중세 교회의 타락과 종교개혁

중세 교회 타락의 원인은 성직자에게 집중된 절대 권력이다. 특별히 당시 교황은 황제를 임명할 권한을 가졌다고 인정되었다. 그러나 중세 여러 교황들 중에는 하나님에 의해 주어졌다고 믿는 그 절대 권력을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많은 일반 백성들을 위해 올바르게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이 적었다. 그러다 보니,

교황의 자리는 항상 뇌물, 음모, 폭력도 서슴지 않는 야심가들의 희생물이 되었다.¹¹

교황의 자리를 놓고도 얼마든지 피 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일 수 있었던 중세 성직자들은 교황의 자리 아래 있는 여러 막강한 지위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행태를 보였다. 그 결과는 공공연한 성직 매매로 나타났다. 권력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고, 자기 권한을 이용했다.¹²

그리고 당시 종교지도자들의 이와 같은 막강한 권력과 권한은 ‘성경에 관한 해석권을 오직 그들만이 독점한다’는 당시 종교시스템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이 사실을 당시 여러 종교개혁자들은 정확하게 파악했다. 후스토 L. 곤잘레스는 그의 책 『종교개혁사』에서 종교개혁의 원인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다.

옛 세계는 사라지고 있었으며 그 자리에 새로운 세계가 자리잡고 있었다. 교회 역시 이처럼 새로운 시대의 압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새로운 형태의 인간관이 형성되듯이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관이 나타나야만 했다. 그러나 과연 어떠한 방법을 통해 이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였다. 어떤 이들은 아직도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원하였지만, 또 다른 이들은 이러한 개혁의 소망을 포기하고 공개적으로 교황청과 결별하였다.

이러한 혼란과 격동의 시대를 통해 수많은 경건한 기독교 신자들은 심각하게 자기의 신앙과 신학을 재검토하게 되었으며, 결국 자기 자신들도 예견하지 못하였던 결론과 입장을 잉태하였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심각하고 경건하였던 또 다른 신자들은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야기된 의견 충돌과 투쟁이 현재 우리가 16세기의 종교개혁이라 부르는 사건을 이루는 것이다. 중세가 거의 끝나갈 때쯤 수많은 개혁 주창자들은 교회의 가장 큰 오류는 다름 아닌 무지와 무식에 있다고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중세를 가리켜 “암흑시대”(Dark Ages)라 이름하였다.¹³

¹¹ 후스토 L. 곤잘레스, 『중세교회사』 엄성욱 옮김, (서울:은성출판사, 1974), pp.96-97.

¹² Ibid. p. 101.

¹³ 후스토 L. 곤잘레스, 『종교개혁사』 서영일 옮김, (서울:은성출판사, 1995), pp.16-17.

이 글에서 곤잘레스가 쓰고 있는 “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관’ 의 발생” , “종교개혁자들이 ’ 내부로부터의 개혁의 소망을 포기하고 공개적으로 교황청과 결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 “ ’ 경건한 기독교 신자들이 심각하게 자기의 신앙과 신학을 재검토’ 할 수 있었던 근거와 그 재검토의 결과” 가 결국 성경의 재해석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시 말해, 중세시대 기독교의 타락은 교황을 비롯한 교회 성직자들의 권력 독점과 남용을 통해 발생, 유지되었다. 그리고 성직자들의 이와 같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은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권리와 책임이 오직 당시 교황을 비롯한 성직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에 16세기 초 마르틴 루터는 성경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는 “이신칭의(以信稱義) 교리” 를 모든 신학과 신앙생활의 대전제로 뒀으로써 성경을 재해석하였고, 이를 통해 비대해진 성직자들의 권력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더불어 라틴어로만 번역되어 있던 성경을 여러 일상언어들로 번역하여 성경 읽기를 통한 개인 신앙생활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이에 필연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당시 마르틴 루터가 내세웠던 종교개혁 5대 강령- ‘오직 성경’ , ‘오직 은혜’ , ‘오직 믿음’ , ‘오직 그리스도’ , ‘오직 하나님께 영광’ 중 ‘오직 성경’ 이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 추진체였다고 할 수 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일환으로 라틴어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되었고, 이어서 여러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성경이 다른 언어들로도 번역된 것은 성경 해석의 권한을 확대, 분산하려는 방향성의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회의 비대해진 권력을 지탱해오던 “잘못된 성경해석” 과 “당시 성직자들에게 주어졌던

신화화된 성경해석의 독점적 권한”이 어느 정도 증지, 약화되었고, 동시에 성도들의 성경읽기를 통한 자발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당시 종교개혁자들의 세력은 교황을 비롯한 당시 구교(舊敎) 성직자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지만, 결국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종교개혁자들의 성경번역과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 보급된 성경을 통해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한 자발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던 무수히 많은 일반 성도들의 힘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후스토 L. 곤잘레스는 그의 책 『종교개혁사』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인쇄술의 발달, 비잔틴 출신 학자들의 유입, 그리고 고전 예술과 학문 유산의 재발견을 통해 이들은 학문과 교육을 발전시켜 스스로 필요한 교회의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¹⁴

이 글에서의 “교육”과 “교회의 개혁”은 당연히 당시 모든 계층의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시민 혹은 일반 대중이라고 지칭할 만한 사람들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현재 한국 교회의 위기와 원인

“중세시대의 교회 타락”과 “종교개혁”을 굳이 언급하는 것은 당시 중세시대의 영적 상황과 현재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침체 사이에는 상당한 공통점과 상관관계가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미국교회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교회 성장주의”에 오랜 시간 동안 매몰되어 있었고, 사실 이는

¹⁴ Ibid.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교회 성장주의”는 릭 워렌 목사의 새들백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의 윌로우크릭 교회, 조엘 오스틴의레이크우드 교회 등 미국의 몇몇 대형교회의 성공신화와 그들의 여러 저서들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여러 프로그램화된 전도전략의 보급을 통해 뒷받침되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이런 미국 몇몇 대형교회의 성장은 일시적인 것이거나 혹은 올바른 성경적 방향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비판이 많다.

특별히 “교회 성장주의” 안에서는 오직 교회 성도 수의 증가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된다. 교회 성장주의자들이 이에 대한 주장하는 신학적 근거도 있긴 하다.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20절¹⁵에 기록된 대위임령(Great Commission)이다. 예수님의 대위임령(Great Commission)은 분명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당장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급박한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교회에 사람을 끌어오라고 하지 않았고, 제자를 훈련하여 세우라 하셨다. 이에 대해 김남식 교수는 빌리 그래함의 십자군 전도운동을 사례로 들어 “교회 성장주의”를 이와 같이 비판한다.

빌리 그래함의 경우 한국 여의도 1973년과 1974년 이전에 1956년 스코틀랜드 글라스고우에서 행해진 빌리 그래함 십자군 전도운동에서 52,253명이 결신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교회에 출석한 사람은 7%인 3,802명에 불과했으며 토론토 십자군 전도운동에서도 8,161명이 참석한 가운데 902명이 교회에 가겠다고 응답하여 11%의 효율을 보였다. 또한 1976년 시애틀에서 열린 빌리 그래함의 다른 십자군 운동사례를

¹⁵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개역개정)

보았을 때 434,1000명이 참석한 십자군 전도운동에서 18,136명이 믿겠다고 결신카드를 작성했으나 1977년 미국 교회성장 매거진 ‘아메리카’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결신 작성자 18,136명 중 단 15% 인 1,285명 만이 교회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교회에 출석했다고 해서 회심을 확신할 수 없으며 또한 제자로 양성되었다는 보고도 없다.¹⁶

“미국과 한국의 몇몇 대형교회의 성공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교회 성장(교인 수 증가를 통해 헌금액 증가)”이라는 아젠다(agenda)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목회자가 성경을 “교회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여, 설교하고, 성도들을 훈련시킨 결과라고 볼 수 있다.¹⁷

그래서 교회들마다 가장 고도로 훈련된 성도들은 모두 “전도대”에 속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목회자는 ‘전도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성도들의 헌신도와 신앙의 성숙함을 일괄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요즘 교회에서 훈련하고 진행하는 전도사역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도라기 보다는 프로그램식 전도법을 활용한 “복음 전달”에 그칠 때가 대부분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보통 프로그램식 전도 전략은 모든 성도들이 전도할 수 있는 쉬운 길을 열어주지만 실제로는 호객하는 행위와 비슷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진술하여 설득하는 형태는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김남식 교수는 그의 논문 “한국교회 프로그램식 전도의 현실과 문제, 그리고 대안”에서 프로그램식 전도법에 대해 이와 같이 비판한다.

¹⁶ 김남식, 『동행전도학』(부평: 한국전도학 연구소, 2015), 14

¹⁷ 참조, Donald McGavran, *Understanding of Church Growth* (Grand Rapids : Eerdmans, 1980).

한국교회는 부흥을 위하여 다양한 전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해 왔다. 대표적인 예로 국제전도폭발, 태신자전도, 해피데이전도, 총동원전도주일 등이 있다. 대부분 전도 프로그램은 목회 일정 가운데 일 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실시되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전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이유는 전도에 대한 성서적, 목회적 부담감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이라는 목표 아래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의무로 인식되어 있으면서도, 누구나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개인적인 부담을 덜기 위한 해결책의 하나로 전도를 프로그램으로 실행하고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식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전도 의무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면서도 비교적 일정 기간 실시하기에 지속적인 부담을 피할 수도 있다.¹⁸

특별히 다양한 전도법은 전반적으로 ‘교리 소개를 초점으로 한 개인전도’ 중심이었다. 개인전도 중심의 오류에 대해서 조지 헌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개인전도는 복음을 너무 단순화시켜 복음이 담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개인전도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의 주제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전해져서 전도 대상자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이나, 문제, 그리고 고민 등을 외면한다는 것이다. 셋째, 개인전도(personal evangelism)는 분명 인격적인 전도여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비인격적인(impersonal evangelism) 마케팅이나 종교적인 선전 혹은 교회 새신자 영입을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는 점이다.¹⁹

특별히 “교회 성장”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교회 사역의 행태를 가장 종합적이고 극명하게 보여주는 전도전략은 단연, “총동원 주일”이라 할 수 있다. 통상 “총동원 주일”이란, 한 날(보통 주일)을 정해 놓고, 그 날 데려올 수 있는 모든 새신자들을 ‘총동원’ 하는 행사를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대상이 새신자 뿐만 아니라 잃은 양(장기결석자들)까지도 포함하기도 한다.

¹⁸ 김남식, 「한국교회 프로그램식 전도의 현실과 문제, 그리고 대안」, 『신학과 실천』 46집, 2015. pp. 480-481

¹⁹ Ibid. pp. 485 에서 재인용. George Hunter, *The Apostolic Congregation*, (Nashville, TN: Abingdon, 2009), p.84

이런 경우 노숙자들을 단돈 몇 천원의 돈으로 사서 행사 당일에만 대거 출석시키는 경우가 여러 교회에서 종종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충동원 주일”에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명예와 상품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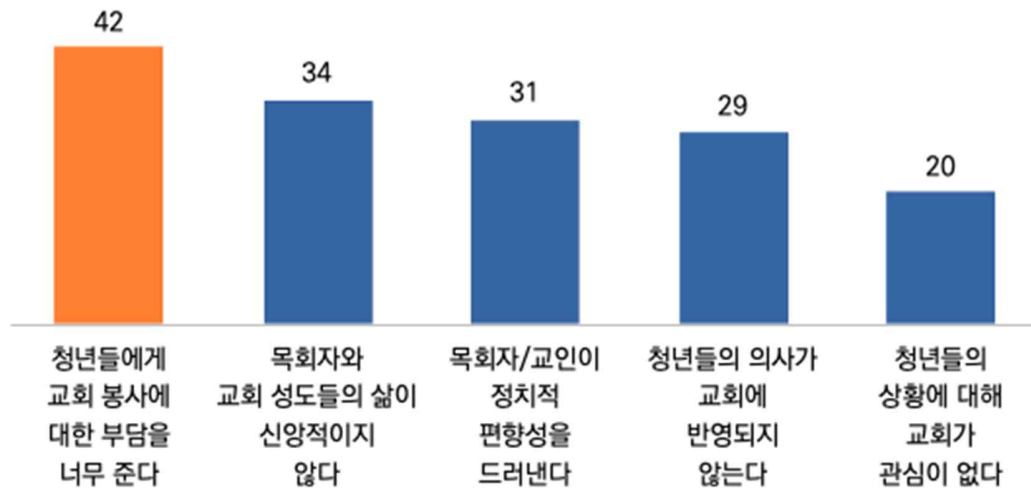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런 행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를 교회 내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교회성장(교인 수 증가를 통해 헌금액 증가)”이라는 관점으로만 성경을 해석하여, 교인 수만 많아질 수 있다면, 그 어떤 수단도 방법도 가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교회 내에 가득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MZ 세대²⁰는 그 어느 세대보다도 교회와 종교에 대해 회의적인 질문을 많이 던지는 세대이다.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바로 이 “성장주의”에 매몰된 교회운영 행태 때문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2023년 2월 실시한 “개신교 대학생의 신앙 의식과 생활” 조사에서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는 청년들의 42%가 교회가 청년들에게 교회 봉사에 대한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응답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교회 성도들의 삶이 신앙적이지 않다”는 응답과 “청년들의 상황에 대해 교회가 관심이 없다”는 응답도 각각 34%, 20%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²¹

²⁰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틀어 지칭하는 대한민국의 신조어다. 밀레니얼 세대는 X세대와 Z세대 사이의 인구통계학적 집단이다. 일반적으로 1981년부터 1996년까지 출생한 사람으로 정의한다.

²¹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 통계,” 「 목회데이터연구소 」, 180 (2023),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79 [2023.9.15 최종 접속]

< 표 10 > 교회 개선 사항(1+2순위, 교회 출석 대학생, 상위 5개, 개선사항 응답한
응답자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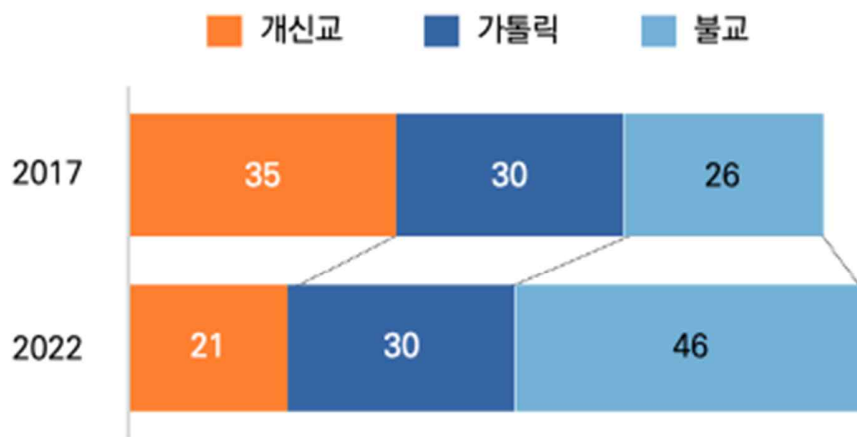


“청년들에게 교회 봉사에 대한 부담을 너무 준다”, “목회자와 교회 성도들의 삶이 신앙적이지 않다”, “청년들의 상황에 대해 교회가 관심이 없다” 등의 응답은 한국의 많은 교회가 “교회 성장 주의”의 관점으로만 성경을 해석하고 사역을 실행해온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니 성장주의에 매몰된 교회와 목회자들은 MZ 세대들이 교회에 던지는 문제에 시원한 대답을 절대 내놓을 수 없다. 그리고 MZ 세대는 그런 교회에 자신을 맡길 생각을 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며 MZ 세대는 “하나님이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에도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다시 말해, “교회성장주의”가 MZ 세대를 교회 밖으로, 믿음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2023년 2월,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종교가 없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른 조사에서 ‘향후 믿고 싶은 종교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단 21%만이

개신교라고 답했다. 이는 2017년 35%였던 비율이 13%포인트나 떨어진 것이다. 반면 불교는 20%포인트나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²²

< 표 11 > 향후 믿고 싶은 종교 (현재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옮길 의향자 + 무종교인 중 종교 보유 의향자, %)



*2017년 조사 : 학원복음화협의회, 일반대학생 1,000명, 온라인 조사
 **기타/모름 응답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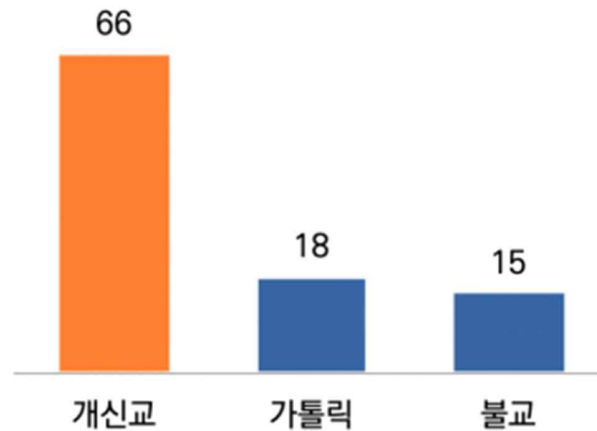
또 최근 2023년 9월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과거에 종교가 있었지만, 지금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버린 종교가 무엇이었는지 묻는 질문에 66%가 개신교라고 답해, 한국교회 성도들의 교회 이탈 추이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과거 개신교에 속해 있었지만 지금은 신앙을 버렸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에게 ‘왜 개신교를 떠났느냐?’ 라고 물었을 때, 29%가

²² Ibid.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때문이라고 답했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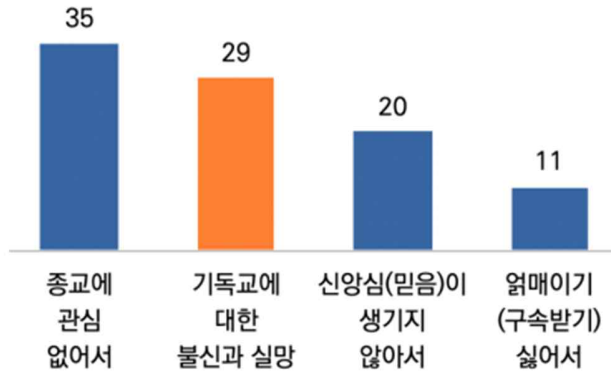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교회에서 행하는 사역이 성도들과 일반 대중들을 지속적으로 실망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연구자는 그 이유를 “교회 성장 주의”에 매몰되어 모든 성경을 이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오랜 시간 실행해왔던 “성장주의”에 경도된 교회 사역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 표 12 > 무종교인의 과거 종교(% , 기타 종교 제외)



²³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 통계,” 「 목회데이터연구소 」, 206 (2023),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94 [2023.9.15 최종 접속]

< 표 13 > 과거 개신교인 중 현재 무종교인이 된 이유 (과거 개신교인 중 현재 무종교인 전환자, 상위 4위, %)



이와 같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교회 이탈 현상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고, 이대로 간다면 한국교회의 교세는 근 40년~50년 내로 급격히 쇠퇴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결코 비관적인 예측이 아니고, 오히려 상당히 현실적인 예측이라 할 수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개신교 비율이 22.5%였 2012년와 비교하여 2022년에는 약 7% 포인트 떨어진 15%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2032년에는 10.2%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²⁴ 그리고 이런 추세는 그 후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²⁴ Ibid.

< 표 14 > 개신교인 인구 비율 추이 및 개신교 인구 추이 추정 (총 인구 기준, %)



결국, 현재 한국교회가 처한 이 모든 위기의 원인은 “교회 성장 주의”에 매몰된 왜곡된 교회 사역의 행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교역자가 “성경의 해석과 적용”의 독점적 권한을 갖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중세 기독교 타락의 근본 원인이 당시 성직자에게만 주어진 성경해석의 독점적 권한 때문이라고 본 것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교회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세시대 종교개혁이 이루었던 것과 같은 평신도들의 성경해석의 권한 확대와 “성장주의”에 매몰된 잘못된 성경해석의 근절 그리고 이를 통해 보다 자발적인 신앙생활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많은 일반 대중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자발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유도했고, 바로 이런 일반 대중 성도들의 힘이 원동력이 되어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 같이 현재에도 이와 같은 개혁운동이 나타나야 한다. 연구자는 이를 위한 일련의 운동을 “신앙개혁”이라고 명명할 것을 제안한다.

신앙개혁이란, 성도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훈련하여, 스스로, 자발적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올바르게 신앙 생활하도록 만들어, 개인의 신앙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나타나는 일반 성도들의 자발적인 힘을 바탕으로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것이다.

Ⅲ. “신앙개혁 운동” 방법론 - 조병호 박사의 “통신학” 을 중심으로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세 종교개혁이 “이신칭의(以信稱義)의” 교리의 기반 아래 성경을 재해석한 일과 더불어 모든 일반 평신도들에게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보급된 일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고찰할 때, 종교개혁의 핵심 추진력은 아래 3가지의 활동을 통해 발생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성경해석 권한의 확대

둘째, 잘못된 성경해석의 근절

셋째, 각 언어로 번역된 성경의 보급으로 촉발된 일반성도들의 자발적인 신앙생활

현 시대의 “신앙개혁” 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중세 시대와 현재는 확실한 차이가 있지만 그 맥락은 비슷하기 때문이다.

첫째, 우리에게는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고, 많은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성도들은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또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이고 간결한 자료들은 극히 적다. 그러므로 성경해석의 권한은 항상 신학자(목회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고,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방법은 사실상 거의 막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중세 시대에 성경해석의 권한이 오직 교황 및 고위 성직자들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둘째,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성경을 오직 “교회성장주의”의 관점으로만 보는 왜곡된 성경해석을 하더라도, 일반 성도들은 이를 전혀 깨달을 수 없고, 따라서 잘못된 성경 해석에 대해 올바른 비판을 할 수 없다.

이는 중세 시대 교회들이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면죄부 판매”, “마녀사냥” 등 여러 왜곡된 사역을 실행한 것에 대해 성도들이 맹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맥을 같이 한다.

셋째, 설혹 누군가가 성경을 스스로 읽고 공부하며 해석하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독해하기에는 너무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다. 실상 지금의 개역개정 성경은 언제든 읽을 순 있어도, 올바르게 이해하기는 도무지 불가능한 성경이다.

이는 중세 시대 성경이 오직 리턴어로만 되어 있어, 일반인들에게 성경이 보급되지 못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연구자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조병호 박사의 통(通)신학에서 찾는다. 조병호 박사는 먼저 통(通)신학에서의 통(通)이라는 말의 개념과 통(通)신학의 개념을 그의 책 “성경통독과 통(通)신학”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필자가 말하는 통이란 어떠한 사물이나 사건을 인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지칭하는 새로운 단어로서, 하나의 사유 대상에 대한 두 가지 이상의 접근 경로를 섭렵하는 인식의 방법이다. 즉,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방법론을 지칭하기 위하여 필자가 조어한 단어인 셈이다. 따라서 필자가 말하는 통(通)이란 서로 다른 영역이나 방식, 관점이나 입장을 우선 그 각각으로 이해하고, 이어서 그러한 다름의 사이에서 그

관계성을 파악하고, 마침내 총체적 인식을 풍요롭게 하는 유익을 발생시키는 사고방식이다.

일반적으로 통(通)이라는 글자는 '통하다'라는 말로 표현될 뿐이지만, 필자가 말하는 통(通)은 통이라는 글자를 사용한 외자의 단어로써 '통(通)으로 보다'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²⁵

통(通)신학이란 '통(通)과 '통(通)으로 보다'라는 말의 의미를 성경읽기 방식에 적용시킨 기독교 경전해석의 방법론이다. 즉, 성경의 기록들을 좀 더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경로와 방식, 다양한 관점을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입장에서 아우르는 것을 일컫는다.²⁶

성경해석의 권한이 확대된다고 가정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오해'와 '오역'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 논리적, 이론적, 학문적 이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를 모든 일반 성도들이 습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조병호 박사의 통(通)신학은 성경을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통(通)으로,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통(通)으로, 제사장 나라와 5대 제국, 하나님 나라를 통(通)으로 또 구약을 4개 분위기로, 신약을 3개 분위기로 통(通)으로 보도록 이끌어 성경 독자로 하여금 성경 전체의 그림을 그리도록 돕는다.²⁷

성경 해석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해석의 다양성과 그 다양성이 허용되는 범위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인데, 이는 평신도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신학자들에게도 만만치 않은 문제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성경의 모든 문장과 단어를 해석함에 있어 여러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은 확실히 열어 두되 조병호

²⁵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通)신학』 (서울:통독원, 2016), p.67.

²⁶ Ibid.p.72.

²⁷ Ibid. pp.18-25.

박사의 통(通)신학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의 흐름과 분위기를 배워, 그 전체 그림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이런 통(通)신학적 성경 읽기의 장점은 첫째, 성경을 통(通)으로 보기 때문에, 편협한 해석이나 좁은 해석을 지양할 수 있고, 둘째, 성경 전체 맥락 속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의 왜곡되고 잘못된 해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셋째, 이미 통(通)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조병호 박사의 많은 학습서적과 단행본이 출간되어 있어 누구든 접근이 용이하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안전하고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기 위해 먼저 조병호 박사의 책을 통해 공부하고 경험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조병호 박사의 통(通)신학을 바탕으로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안전하게 해석하며,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면,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이신칭의(以信稱義) 교리”의 대전제 위에 뒀으로써 성경을 재해석하고 이를 통해 비대해진 성직자들의 권력을 송두리째 흔들고, 더불어 라틴어로만 번역되어 있던 성경을 여러 일상언어들로 번역하여 성경 읽기를 통한 개인 신앙생활의 대중화를 이끌던 것 같은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내용을 간략하게 표로 정리해보았다.

< 표 15 > 신앙개혁 (중세시대와 비교하여)

시대	중세시대 - 종교개혁	현재 - 신앙개혁
성경	라틴어 성경	개역개정 성경
해석	교황 및 고위 성직자들만 성경해석권 독점	신학자(목회자)만 성경해석권 독점
해결책	1) 각 언어로 성경 번역 2) 성경배포	1) 통(通)성경 2) 쉬운 번역 성경읽기

VI. 신앙개혁 운동을 위한 비대면 기도 훈련의 실제

- 장석교회 청년부에서 실시한 매일기도학교를 중심으로

A. 비대면 신앙교육의 필요성과 가능성

1. 구술문화 시대에서 디지털 문화시대로의 변화²⁸와 디지털 스토리텔링

M. 멜스 밀러는 자신의 책 “밀레니엄 매트릭스에서 과거 인류는 구술 문화에서 인쇄 문화, 방송 문화를 거쳐 현재는 디지털 문화 시대로 넘어와 있다고 주장한다.²⁹ 특별히 디지털 문화가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서술한다.

컴퓨터 사용을 놓고 볼 때 내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과 내 자녀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 나는 컴퓨터가 지니고 있는 기능 가운데서 겨우 일부분만을 사용한다. 나는 컴퓨터의 특별한 기능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하며 그 점을 의식하면서 사용한다. 반면에 내 아이들은 매주 새로운 기능을 찾아내어 내가 쉽게 포기해 왔던 기술적인 문제점을 해결한다. 나는 내 컴퓨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지만, 아이들은 컴퓨터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³⁰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교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도 깊이

²⁸ M. 렉스 밀러, 『밀레니엄 매트릭스』, 김재영 옮김, (서울:국제제자훈련원, 200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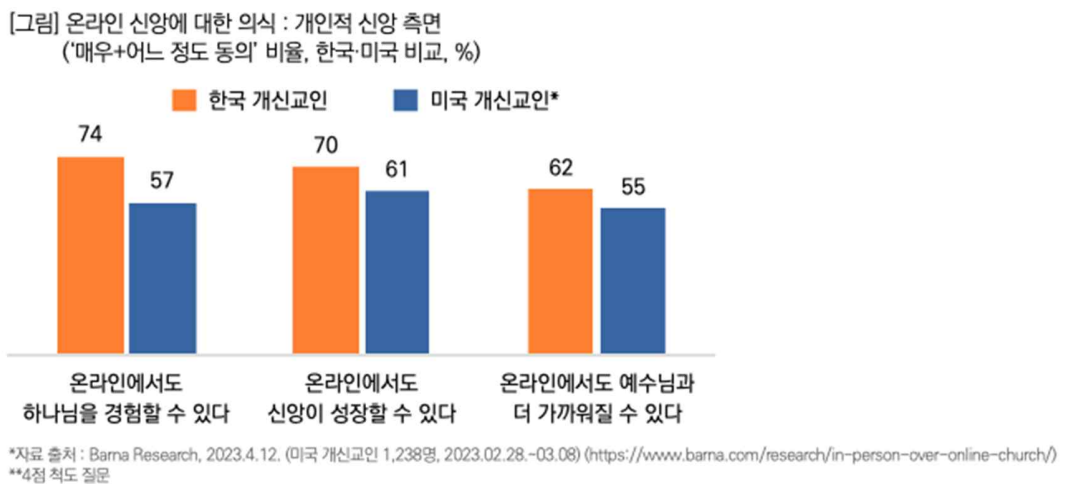
²⁹ Ibid.

³⁰ Ibid. pp.138-139

생각해봐야할 점이다. 사이버 교회(cyber church), 디지털 교회(digital church)에 대한 논의는 이미 2000년대 초에 몇몇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있어왔다. 그러나 당시만 하더라도 먼 이야기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이 과제는 당면과제가 되었다.³¹

특별히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미국 Barna Research의 조사를 참조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1세기 IT 강국인 한국은 미국과 비교해봤을 때도 온라인 공동체에 대한 상당한 니즈를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³²

< 표 16 > 온라인 신앙에 대한 인식 : 개인적 신앙 측면 (한국-미국 비교, %)



현재 한국의 대중들은 디지털 문화를 통해 접하는 이야기에 매료되어 있다. 유튜브는 전국민의 놀이터가 된 지 오래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

³¹ 지용근 외 9명,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서울:규장, 2022), p.77.

³²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 통계,” 「 목회데이터연구소 」, 197 (2023),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90 [2023.9.15 최종 접속]

수십개의 영상 콘텐츠를 소비한다.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 단순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만 접하지 않는다. 수많은 강연과 깨알 같은 일상 정보와 조언들을 접한다. 유튜브에 방송을 만들어 올리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전문가가 아니다. 영상 공급자들은 자기의 삶에서 접할 수 있는 소소한 일상을 찍어 유튜브에 업로드 한다. 예전 같으면 별 관심도 끌지 못했을 영상들의 조회수가 수천만에 이르기도 한다. 이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우리 일상 속에 이미 깊이 침투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³³

이미 대부분의 대중들이 디지털 스토리텔링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교회 사역의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여전히 교회가 대면 모임을 중심으로 한 강연과 설교, 종이에 인쇄한 여러 성경공부 교재와 기타 대면 활동을 통한 교육만을 고집한다면, 이미 변화된 일반 대중 성도들의 기호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2.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신앙 생활 공간으로서의 ‘가정’의 중요성

코로나19 이후 크게 변화한 것이 바로 ‘가정’의 공간적 인식이다. 우리는 근 3년 가까이 집에서 주로 활동했다. 직장 업무도 집에서 처리했고, 신앙 생활도 집에서 해야 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집에서 해왔던 일들은 많았지만, 대면 모임이 전면 금지되면서 그 동안은 집에서 잘 하지 않았던 일을 다른 대안이 없어, 오직 집에서만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났다.

³³ 김영래. 「디지털 스토리텔링과 기독교교육」, 『신학과세계』 78집, 2013. pp. 435-463 참조.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 가운데 하나인 공간에 대한 개념을 이미 바꿔 놓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우리는 학생이 되고,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우리는 회사원이 된다.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그 자체의 고유한 규칙과 리듬을 통해 작동하는 이 공간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인식해 온 것이다. 코로나19로 학교에 나가지 않는 학생,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직장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네트워크 속에서 공부를 하고 업무를 처리한다면 이들이 스스로를 자각하는 방식부터 달라지게 된다.³⁴

그 중 하나가 신앙생활이다. 가정 예배는 코로나19 전에도 많이 시도되었지만, 코로나19 기간만큼 강력하게 요구되지는 않았었다. 주일 예배도 가정에서 드려야 했다. 분위기, 음향, 화면 등 모든 조건이 열악했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다. 그래도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라도 드릴 수 있었다. 그러나 성경공부, 기타 다른 교회 행사들은 완전히 중지되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Pandemic) 사태가 오리라고 그 어떤 교회 사역 전문가도 심지어 그 어떤 감염병 전문가도 예상하지 못했다. 전 인류가 갑자기 아무런 준비 없이 팬데믹(Pandemic) 사태를 맞았다. 그러니 교회 사역의 상당 부분은 중지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나름 디지털 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들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zoom으로 하는 소모임, 그 외에도 여러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사역들에 쉽게 적응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젊은 세대들도 온라인으로 혹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연구자도 코로나19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어떻게든 사역을 진행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 QT집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배포했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열어 QT묵상을 서로 나누며

³⁴ 임승규 외 6명, 『포스트 코로나』 (서울:한빛비즈, 2020), p.8.

소통하도록 독려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기에 적합하도록 예배 순서와 영상 편집, 음향 등 모든 부분을 신경썼다. 그리고 최대한 좋은 조건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 영상 촬영, 콘텐츠 개발, 영상 편집 기술 습득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역부족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동안 교회에서 대면으로 신앙 생활해오던 우리에게 가정은 그리고 온라인 방식은 분명 신앙생활하기에 익숙하지도 어찌 보면 적합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잠시 예배를 떠났고, 교회사역을 떠났다. 예배는 한 주, 두 주 드리지 않다 보니 금세 익숙해졌고, 예배를 드리던 시간은 곧 다른 스케줄로 채워졌다. 이런 시간이 계속 이어지면서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이전 나의 신앙은 괜찮았던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자기 신앙의 자생력은 거의 ‘0’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본래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 훈련 받고, 훈련 받아서 생긴 능력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발휘되어야 했지만 이 모든 메커니즘은 실제로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코로나19 상황을 지나면서 확연히 드러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가정’이라는 공간이 갖는 의미는 변화되었다. 가정은 이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별 의미가 없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시험대가 되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바로 ‘가정’에서 그 진가를 보여야 한다.

3. 비대면 모임의 특성 - 대면 모임과 비교하여

연구자는 가정에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실행하는 신앙생활에 성도들이

거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성도들과의 인터뷰를 반복하면서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그 이유를 고민하던 중 왜 온라인으로 실행하는 여러 사역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모임의 형태만 온라인으로 변했을 뿐, 온라인에 적합한 교육방법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면 모임과 비대면 모임은 분명 큰 차이가 있고 각각 그 고유의 특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비대면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비대면 모임과 대면 모임이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장 모임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오는 방식으로 비대면 모임을 진행한다면, 대면 모임에 비해 ‘집중도’와 ‘참여도’는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교회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여러 신앙생활 및 신앙훈련에 대한 성도들의 부정적 감정만 쌓이게 될 것이다. 이는 교회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여러 사역에 참여를 기피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사역 이후의 피드백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비대면 모임에 맞는 모임 진행 방식이 개발되어야 하고, 그것에 맞는 교제와 피드백 방식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 표 17 > 대면모임과 비대면 모임 특성 비교

대면모임	비대면 모임
집중도가 비교적 높다.	집중도가 대면 모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지정된 장소에 모여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공간적 제약이 존재한다.	온라인 모임이 가능한 컴퓨터 환경만 갖춰져 있다면 공간적 제약이 전혀 없다.
모임 장소에 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모임 시간에 제약이 많다.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모임을 하기 때문에 모임시간이 비교적 자유롭다.
모든 사람이 대면 모임에 익숙해져있다.	비대면 모임에 익숙한 사람은 거의 없다.
지금까지의 모든 모임과 회의의 진행 방식은 대면 모임에 맞게 맞춰져 있다.	비대면 모임에 맞게 준비된 모임과 회의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된다.	비대면에 맞는 진행 방식과 참여 방식을 개발•적응•훈련해야 한다.
모임 진행 시 상대방(청중, 인도자)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	모임 진행 시 상대방(청중, 인도자)의 반응을 인지하기 어렵다.
많은 사람이 동시에 말을 해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단 두,세 사람이 동시에 말을 해도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문서 자료를 구술로 설명만 해도 충분하다.	다양한 영상자료, 음향자료가 필요하다.

위의 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사역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알게 된 대면 모임과 비대면 모임의 차이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대면 모임은 비대면 모임에 비해 집중도가 높다. 아무래도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이며, 모임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눈과 즉각적인 평가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모임에 보다 집중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비대면 모임은 그렇지 않다. 비대면 모임은 모임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다른 이들 몰래 인터넷 서핑이나 기타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다. 또 모임 인도자와 대면하여 모임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모임 자체에 집중하려고 해도 대면 모임에 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또 대면 모임은 이미 모든 이들에게 익숙한 모임 방법이다. 코로나19 이전 우리는 항상 대면 모임을 해왔다. 대면 모임을 하면서 언제 나의 말을 꺼내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말을 시작해야 할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등에 대해 우리는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나 비대면 모임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 코로나19 이전 우리는 아주 특별히 불가피한 경우에만 영상 통화나 비대면 모임을 진행했었다. 또 비대면 모임은 대면 모임과 그 환경이 너무 다르다. 대면 모임에는 전혀 없는 컴퓨터 딜레이 현상이나 끊김현상이 비대면 모임에서는 상시적으로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대면 모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말을 해도 충분히 그 의사와 뜻을 파악할 수 있지만, 비대면 모임에서는 2~3명이 한번에 말을 하면 그 누구의 말도 아예 들리지 않게 된다. 이처럼 대면 모임과 비대면 모임의 환경의 차이는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대면 모임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대면 모임 때보다 더 서로에게 집중한다거나, 상대방의 말을 끊고 싶으면 미리 표시를 하거나, 자기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등의 대면 모임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비대면 모임에서는 철저히 지켜야 한다. 대면 모임과 달리 비대면 모임은 상대방이 나의 말에 집중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거나 흔들린다면 제대로 된 모임을 진행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비대면 모임을 진행할 때는 비대면 모임에 적합한 훈련과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4. 비대면 기도 운동의 필요성

성도들이 보통 기도를 가정과 교회 중 어디서 더 많이, 더 집중해서 할까? 당연히 교회일 것이다. 교회 사역에 열심인 성도들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와 열심히 기도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모든 대면 모임이 정지되었을 때, 우리는 기도를 개인적으로 해야 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집에서 혼자 하는 기도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 모여, 서로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기도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일단 코로나 이전 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것이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동기가 되었다. 또 내가 혹 제대로 기도할 마음이 없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고, 기도 소리가 들리면, 나도 모르게 그 기도의 분위기를 따라 열심히 기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대면 모임이 정지되어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하며 기도하려고 했을 때, 기도는 별로 집중되지 않았고, 기도의 동기도 잘 생기지 않았다. 이는 밤에 라이트를 켜지 않고 운전을 했는데, 주변 다른 자동차들의 라이트 때문에 운전이 어려움이 없었고, 내 차에 라이트가 켜져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과 비슷한 이치다. 기도의 동기도, 기도의 열심도 별로 없지만, 그저 교회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가는 것에는 익숙하고, 나가서도 다른 이들의 기도에 이끌려, 스스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도 제대로 인식을 못한 채,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쏟아냈던 허술하고, 진실하지 못한, 깊이도 별로 없는 기도 생활이

코로나19로 인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기도는 비대면으로, 혼자, 장소는 교회가 아닌 집이나 혹은 다른 삶의 자리에서 더 깊이 진심으로 집중해서 하도록 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가는 기도의 훈련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연구자는 이미 앞의 논의에서 중세시대, 성경의 모든 해석권과 적용권이 일부 성직자들에게 독점된 상황에서 일반 대중들은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하는 개인신앙생활이 어려웠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고, 더불어 성경의 해석권과 적용권을 독점하고 있던 교황을 비롯한 일부 성부성직자들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성경을 왜곡하고 오해하여 해석하고, 이를 실행할 때 그 누구도 이런 행태를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중세 교회의 어두움은 점점 더 깊어 졌고, 더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었음을 지적했다. 이에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이신칭의(以信稱義) 교리위에 둬으로써 당시 성직자들의 성경 해석의 독점적 권한을 약화시키고, 더불어 라틴어 성경을 일상언어로 번역함으로써 일반 대중 성도들의 자발적인 개인 신앙생활의 고취를 통해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음을 언급했다.

그리고 연구자는 이 역사적 사실에 빗대어 현대 한국 교회의 위기를 논하였다. 현재도 성경의 해석권은 오직 신학자(목회자)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교역자가 오직 “교회 성장 주의”라는 왜곡된 기준에 경도되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이에 따라 오랜 기간 왜곡된 사역을 진행하더라도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현재 한국 교회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연구자는 중세 시대 교회를 개혁했던 종교개혁 운동에 빗대어 신앙개혁 운동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 제안의 연장선에서 일반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조병호 박사의 통(通)신학이 현대 일반 성도들이 보다 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보태어 연구자는 비대면 기도운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비대면 기도 모임은 군중 속에 파묻혀 자기 의지가 아닌 분위기에 휩쓸려 중언부언하며 기도했던 외식적인 신앙의 행태를 조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만약 비대면 기도운동을 위한 기도 훈련 프로그램을 잘 준비하여 진행된다면 개인기도 생활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 비대면 기도 운동의 유의사항

먼저 비대면 기도 운동을 포함한 비대면 신앙생활이 여전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활동이라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비대면 기도회가 대면 기도회를 그저 온라인으로 그대로 옮겨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비대면 기도회는 대면 기도회와는 다른 환경과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대면 기도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비대면 기도회에 적응하고, 비대면 기도회를 이해하기 위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비대면 기도회 유의 사항 첫째는 인도자를 제외한 비대면 기도회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음소거를 하여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도회를 위한 차분한 분위기를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인도자는 기도음악을 미리 준비하고 소리를 공유한 상태에서 미리 음악을 재생하여 비대면 기도회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대면 기도회 시작 전부터 기도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별히 음악 볼륨은 각자의 컴퓨터

설정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기도회가 시작하기 전 첫 화면에 각자의 컴퓨터 화면과 주변 환경과 음량을 조정해달라는 안내 문구를 넣는다. 특별히 기도에 방해가 되는 필요 없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모두 닫아 달라는 문구도 꼭 넣도록 한다.

< 그림 1 > 비대면 기도회 준비 및 공지사항 화면

매일기도학교 랜선 기도회
 *각자의 환경을 모임에 맞게 최적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조용한 장소 확보 ② 방해 되는 프로그램 종료
 ③ 화면 조정 ④ 음량 조절 ⑤ 적극적이고 진실한 마음
 ⑥ 각자 아이디, 실명으로 입장했는지 Check!
 → 현재 나오는 음악소리를 기도할 때에 알맞은 크기로 조절해주세요!

셋째, 비대면 기도회 때 기도할 기도제목의 수와 각 기도제목마다 소요될 기도 시간을 기도회 전에 미리 정하고 공지하는 것이 좋다. 교회에서 청중들이 모여 기도회를 가질 때는 각 기도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서서히 조용해지게 되고 이 때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 다음 기도제목으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지만, 비대면 기도회는 그런 의사소통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대면

기도회에서는 몇 가지 또 어떤 기도제목으로 기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미리 공지하고, 각 기도제목마다 기도 시간을 미리 할당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야 혼란스럽지 않게 안정적으로 비대면 기도회를 진행할 수 있다.

< 그림 2 > 비대면 기도회 전체 기도제목과 시간 공지 화면

각 기도제목마다 4분씩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회 순서

기도제목 1 : 이 시간 & 나의 삶
 기도제목 2 : 아빠, 아버지
 기도제목 3 : 우리 아버지
 기도제목 4 : 하늘에 계신 아버지
 기도제목 5 : 장석교회 & 청년부 & 서로를 위해
 마무리 기도 및 공지사항

넷째, 인도자는 ppt로 기도제목을 미리 제작해 놓는다. 그리고 기도회 중에는 화면공유를 통해 ppt 화면을 띄워 놓고, 기도제목을 읽어주고,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말하고 기도를 시작한다.

< 그림 3 > 비대면 기도회 기도제목과 내용 공지

기도제목 1: 이 시간 & 나의 삶

- 지금 이 기도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다 버리게 하시고 더 정결하게, 더 진실하게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응답 받게 하옵소서.

다섯째, 비대면 기도회 중에는 오직 인도자만 말할 수 있고, 다른 참여자들은 음소거를 해놓기 때문에, 기도회에 참여한 성도들에게는 음악 소리를 제외하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진행했던 기도회는 옆에서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중에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의 동력을 더 얻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기도회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조용한 가운데 자기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비대면 기도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도 미리 공지하는 것이 좋다.

여섯째, 각자의 화면은 다 켜놓아서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참가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소리는 들리지 않더라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B. 비대면 기도 훈련을 통한 신앙개혁의 실제 (장석교회 청년부의 매일기도학교를 중심으로)

1. 매일기도학교 개요

매일기도학교는 말 그대로 매일 기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대면으로도 물론 가능하지만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을 공부하며 가장 성경적이고 균형 잡힌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끈다.

그러므로 매일기도학교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배운다. (주기도문 기도를 따라)

둘째, 기도를 습관화한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 혼자)

매일기도학교는 총 10강으로 이루어진다. 맨 앞 주차는 공지사항과 각자 매일기도학교를 참여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준비하는 주간이고, 맨 마지막 주장은 마무리하는 주간이다. 그러므로 강의는 총 10강, 총 훈련 기간은 12주이다.

모든 과정은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진행된다. 구글 클래스룸에서 “매일기도학교” 과목을 수강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첫째, 구글 클래스룸 매일기도학교 강의 초대링크를 통해 가입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링크만 있으면 바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간편하다.

둘째, 구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 구글 클래스룸을 검색하여 클릭해서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온다. 그리고 오른쪽 제일 위에 “+” 표시를 클릭하고, “수업 참여하기” 를 클릭하면 수업코드를 쓰는 란이 나온다. 여기에 매일기도학교 수업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매일기도학교 수업에 참여할 수가 있다.

매일기도학교는 총 4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강의

둘째, 비대면 연합 기도회(랜선 기도회)

셋째, 개인기도과제 (혼자서 기도하는 훈련)

넷째, 그룹 모임

이다.

첫째, 강의는 이미 제작된 교재와 강의 영상을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진행한다. 특별히 강의는 대면 모임 때 실제 강의를 녹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요즘 유튜브(www.Youtube.com) 혹은 틱톡(www.tiktok.com)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디지털 스토리텔링 방식을 따른다. 강의는 주기도문을 차례대로 해설하며, 가장 성경적인 기도의 모범을 추적한다. 참가자는 강의를 듣고 난 후에 구글 클래스룸에 올라가 있는 각 강의 질문과제에 답변을 해야 한다. 강의 질문 과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제출자 이름 및 인적사항.
- ② 주기도문을 한번 집중하여 외우면서 하나님께 짧게 기도하라는 요청.
- ③ 해당 강의를 통해 배운 주기도문 기도를 중심으로 자기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
- ④ 매일기도학교를 진행하며 혹은 강의를 들으며 생긴 질문이나 요청사항

적기. (이 답변에 대해서는 목회자가 반드시 피드백을 해줘야 한다.)

< 그림 4 > 매일기도학교 강의 수강 후 질문 과제 예시

질문 : 4과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기

baesukhyun1004@gmail.com [계정 전환](#) 🔒

📧 비공개

* 표시는 필수 질문임

이름을 적어주세요. *

내 답변

천천히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기도합니다. *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하시며"라는 기도를 떠올리며 오늘 배운 내용인 "나의 삶", "나 *의 주변", "나라 전체", "이 세상 모든 나라", "전 우주와 영적세계"를 하나님께서 통치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해야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각자의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배운 내용을 복습하면서, 내면화하면서, 최대한 진실한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려보세요.)

내 답변

매일기도학교에 바라는 점이나 기대하는 점 혹은 질문을 적어주세요.

내 답변

제출
양식 지우기

매일기도학교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구성요소는 비대면 연합 기도회(랜선 기도회)이다. 매일기도학교를 수강하는 모든 수강생들은 반드시 이 비대면 기도회에 참여해야 한다. 이 시간을 통해 수강생들은 비대면으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법을 훈련함과 동시에 비대면 환경에서 기도 및 신앙생활 하는 법을 훈련한다. 무엇보다 내 옆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가 아닌 삶의 자리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대면하여 기도하는 법을 훈련한다.

비대면 연합 기도회는 총 12주차 중 9주차에 걸쳐 매주 1회에서 2회까지 시간은 20분~40분까지 그 횟수와 기도시간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진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스스로 훈련한다.

매일기도학교의 세 번째 구성요소는 개인기도과제이다. 매일기도학교를 수강하는 모든 수강생들은 반드시 이 개인기도과제를 해야 한다. 개인기도과제는 총 12주차 중 7주차에 걸쳐 매주 1회에서 2회까지 그 횟수와 시간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진행하게 되는데, 수강자들은 비대면 연합 기도회(랜선기도회)에서 기도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그 주차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게 된다. 이를 위한 각 주차별 개인기도과제를 위한 모든 기도제목과 기도음악을 담은 영상을 각 주별로 제작하여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수강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사실 이 개인기도과제가 매일기도학교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수강자는 개인기도과제를 통해 매주 강의를 통해 배운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을 복습하고, 자신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실제로 기도하게 된다. 이를 통해 매일기도학교를 수료한 후에도 스스로 혼자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된다.

개인기도과제를 실행한 수강자는 반드시 자신이 개인적으로 기도한 내용에 대하여 구글 클래스룸에 올라가 있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데, 개인기도과제 질문은 아래와 같다.

- ① 제출자 이름 및 인적사항.
- ② 개인기도과제 영상을 틀어 놓고 정해진 시간 동안 기도했는지에 대한 질문
- ③ 개인기도과제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무엇이었는데 대한 질문 (이 답변에 대해서는 반드시 목회자가 피드백을 해줘야 한다.)
- ④ 개인기도과제에 대해 바라는 점이나 기대하는 점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답변에 대해서도 반드시 목회자가 피드백을 해줘야 한다.)

매일기도학교 마지막 네번째 구성요소는 비대면 기도회 직후에 이루어지는 그룹모임이다. 5명~7명으로 매일기도학교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미리 짜여진 이 소그룹은 비대면 기도회가 있는 주간 중 1회 진행하며, 그룹 모임을 이끄는 사람은 이미 한번 이상 매일기도학교를 수강한 사람으로 한다. 매일기도학교 참가 신청을 받을 때 이미 비대면 연합 기도회에 참가할 요일과 시간을 특정하여 정하게 되는데, 대체로 자신이 정한 비대면 연합 기도회 참가 요일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룹을 조직하게 된다.

그룹을 이끄는 리더는 그룹 모임 시간에 그룹원들이 매일기도학교를 수강하는 중 어려운 점이나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묻고, 이에 대해 해결해주어야 한다. 또한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다음 그룹 모임이 있는 일주일의 시간 동안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도록 독려해 주어야 한다. 그룹 모임 시간을 통해 수강자는 함께 기도를 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다른 그룹원들의 모습을 보며 동기부여도 받고, 끝까지 수료할 수 있는 격려도 얻게 된다.

< 그림 5 > 개인기도과제 후 질문 과제 예시

질문 : 매일기도학교 5주차 개인기도 과제

baesukhyun1004@gmail.com [계정 전환](#) ☁

📧 비공개

* 표시는 필수 질문임

이름을 적어주세요. *

내 답변

매일기도학교 5주차 개인기도 과제 영상을 따라 기도했습니까? *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어려웠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 혹은 좋았던 점 및 느낀점을 적어주세요. *

내 답변

개인기도 과제에 바라는 점이나 기대하는 점 혹은 질문을 적어주세요.

내 답변

제출
양식 지우기

2. 매일기도학교 주차별 내용, 필수 공지사항 및 강의내용 요약

매일기도학교의 주차는 0주차부터 11주차까지 총 12주차로 진행된다. 강의는 1주차에 1강을 시작으로 10주차 10강으로 끝이 나고 0주차는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주간으로, 11주차는 마지막 비대면 연합 기도회 2회와 마지막 개인기도과제 2회를 진행하며 마무리하는 주간으로 삼는다.

(1) 0 주차

0 주차는 매일기도학교를 진행하기 위한 제반 사항들을 점검하고, 수강자들의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으로 삼는다. 진행자(목회자)는 먼저 이미 받은 수강자들의 매일기도학교 수강신청서를 토대로 매일기도학교 진행 기간 동안 실행할 비대면 연합 기도회 시간과 요일을 특정하여 모든 수강생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모든 수강생들은 일주일(월~주일)중 요일을 2개 이상 반드시 정하여 비대면 연합 기도회를 위한 시간으로 비워두어야 한다.

또 이 주간에는 앞으로 12주간 매일기도학교를 진행하기 위한 상세한 공지사항을 전달하여야 한다. 매일기도학교 0 주차에 해야 하는 공지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구글 클래스룸 “매일기도학교” 가입에 관한 안내

① 구글 클래스룸 “매일기도학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수적으로 구글에 로그인을 해야 한다.

② 구글 클래스룸 “매일기도학교”에 가입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구글 클래스룸 “매일기도학교” 강의 초대 링크를

통해 접속하는 것이다. 이 방법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구글 검색창에 구글 클래스룸을 검색하여 들어와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 를 클릭하여 초대코드를 입력하는 방법이다. 초대코드는 “(초대코드 기입)” 이다.

둘째, “매일기도학교” 강의 진행에 대한 안내

① 매일기도학교 교제를 반드시 받아가라는 공지를 한다. 교제는 모든 수강자에게 이미 발송이 되어야 하지만, 혹시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보충하여 공지하는 것이다.

② “매일기도학교” 강의는 강의 영상으로 진행된다. 강의는 매주 월요일 구글 클래스룸에 공개하거나 미리 모두 띄워 놓고 각 해당 주차 강의에 접속하여 수강하도록 하면 된다.

③ 뿐만 아니라 이번 주차 강의에 해당하는 강의 질문에도 반드시 답해야 한다는 공지도 빠트리면 안 된다.

④ 강의는 매주 월요일 카카오톡 혹은 문자 등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로 공지하여 수강자가 이번 주차에 들어야 할 강의가 몇 강인지. 그리고 반드시 강의 질문에도 답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그림 6 > 매일기도학교 신청서 예시

매일기도학교 신청서

매일기도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주세요.

이름 *

단답형 텍스트

전화번호 *

단답형 텍스트

매일기도학교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요청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장문형 텍스트

매일기도학교 3주차(1/23~29 주간)부터 시작되는 랜선기도회 참여 가능 시간을 체크해주세요. 최소 2개 이상 체크하셔야 합니다. 혹시 1개 이하로 체크할 수밖에 없는 경우 아래 2번 질문에 적어주세요. (최소 2개 이상 체크!!)

화요일 저녁 9:30

목요일 저녁 9:00

토요일 저녁 9:30

랜선기도회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거나 요청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최대한 반영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형 텍스트

< 그림 7 > 매일기도학교 주차별 일정

강의	연합기도회 (zoom or 오프라인)		영상 랜선 기도회		총 횟수
0					0
1					0
2					0
3	연합기도회(2과)				1
4	연합기도회(3과)				1
5	연합기도회(4과)		개인기도과제(1과~4과)		2
6	연합기도회(5과)		개인기도과제(1과~5과)		2
7	연합기도회(6과)		개인기도과제(1과~6과)		2
8	연합기도회(7과)	연합기도회(7과)	개인기도과제(1과~7과)		3
9	연합기도회(8과)	연합기도회(8과)	개인기도과제(1과~8과)		3
10	연합기도회(9과)	연합기도회(9과)	개인기도과제(1과~9과)	개인기도과제(1과~9과)	4
	연합기도회(10과)	연합기도회(10과)	개인기도과제(1과~10과)	개인기도과제(1과~10과)	4

셋째, 비대면 연합 기도회에 대한 공지

① 0 주차는 이미 수강자들이 매일기도학교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참여 가능한 비대면 연합 기도회 요일을 지정한 상태이다. 진행자(목회자)는 이를 확인하여 모든 수강자가 빠짐없이 자신이 비대면 연합 기도회에 참여할 요일을 잘 지정했는지, 혹시 요일을 지정할 때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혹 문제가 있을 시 0 주차 중에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확인한다.

② 모든 수강자에게 비대면 연합 기도회 일정과 향후 진행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다시 자세히 공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일기도학교에서 비대면 연합 기도회는 3주차(4번째 주간)부터 시작되는데, 그 시작되는 날짜와 그 주간부터 비대면 연합 기도회가 시작된다는 내용과 더불어 비대면 연합 기도회 시간, 그리고

비대면 연합 기도회가 있는 날 몇 시부터 시작되는지 등 비대면 연합 기도회에 관련된 모든 공지가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③ 그리고 매주 월요일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해당 주차에 관련된 공지를 할 때 해당 주차의 비대면 연합 기도회에 관련된 내용도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비대면 연합 기도회 후 진행되는 그룹 모임에 대한 공지

① 그룹 모임은 비대면 연합기도회가 시작되는 매일기도학교 3주차(4번째 주간)부터 시작된다. 수강자는 매일기도학교 신청서를 작성할 때, 자신이 선택한 비대면 연합 기도회 요일, 이틀 중 무슨 요일에 그룹 모임에 참여할 것인지 이미 선택한 상태여야 한다. 진행자(목회자)는 이 내용을 확인하여 그룹원과 그룹장을 조직해주어야 하며, 0주차에 반드시 공지해주어야 한다.

② 혹시 이에 대한 애로 사항이 있을 시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반드시 해결해주어야 한다.

다섯째, 개인기도과제에 대한 공지

① 개인기도과제는 5주차(6번째 주간)부터 시작하여 일주일에 1번에서 2번으로 늘린다.

② 혹시 이에 대한 애로 사항이 있을 시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반드시 해결해주어야 한다.

③ 개인기도과제 후에는 반드시 개인기도과제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는 것을 수강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여섯째, 비대면 연합 기도회 및 개인기도과제 미제출시 보충 방법 공지

① 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비대면 연합 기도회에 들어오지 못할 경우, 다른 요일에 진행되는 비대면 연합 기도회에 참여하여 보충하거나 추후에 개인기도과제로 대체할 수 있지만 가급적 비대면 연합 기도회에 빠지지 않도록 독려한다.

② 개인기도과제의 경우도 다른 주간 개인기도과제로 대체할 수 있음을 공지하되, 되도록 해당 주차에 부과된 개인기도과제를 완수하도록 독려한다.

(2) 1 주차

1 주차에는 매일기도학교 1강이 진행되며 비대면 연합 기도회와 개인기도과제는 없다. 1주차에 진행해야 하는 공지와 1주차 강의 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일기도학교 1주차에 해야 하는 공지

① 매일기도학교 1강을 교재를 참조하여 몇 번 반복하여 듣고, 구글 클래스룸에 올라가 있는 강의 질문에 반드시 답하도록 공지한다.

② 비대면 연합 기도회가 3주차부터(2주후)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 그림 8 > 매일기도학교 0 주차 공지사항 예시 - (1)

<p><공지사항> - 0 주차</p> <p>2023년 하반기 매일기도학교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매일기도학교 0주차로 매일기도학교에 관한 공지사항을 숙지하는 주간이고, [매일기도학교] 구글 클래스룸에 가입하는 주간입니다. 아래 공지사항을 잘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p>	<p>→ 이번 주차가 0주차이고, 한주간 동안 매일기도학교 진행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임을 공지</p>
<p>혹시 아직도 매일기도학교 교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는 주일에 반드시 매일기도학교 교제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주는 매일기도학교 1주차로 바로 세미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p>	<p>→ 아직 “매일기도학교” 교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교제를 챙겨가도록 공지</p>
<p>1. 구글 클래스룸 가입 및 강의</p> <p>https://classroom.google.com/c/MjAyNzExODZzMzE1?cjc=37rt3ci 수업코드 : 37rt3ci</p>	<p>→ 구글 클래스룸 “매일기도학교” 참여를 위한 공지</p>
<p>(1) 매일기도학교의 모든 강의와 과제는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진행됩니다. 보내드린 [매일기도학교] 구글 클래스룸 초대 링크에 들어가시면, 구글 로그인 후 구글 클래스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p> <p>(2) 구글 클래스룸에는 매주 월요일 강의와 과제가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p>	
<p>(3) 교제를 참고하셔서, 강의를 시청하신 후에는 반드시 강의 질문에 답을 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p>	<p>→ “매일기도학교” 강의와 강의 질문 과제에 대한 공지</p>
<p>2. 연합 기도회</p> <p>(1) 매일기도학교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기도회의 종류가 2개 있습니다. 첫째가 연합 기도회이고, 둘째가 개인기도과제입니다.</p> <p>(2) 연합기도회는 매일기도학교 수강생들이 각자의 형편에 맞는 시간 에 모여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는 기도회입니다.</p>	<p>→ 비대면 연합 기도회에 대한 공지</p>

< 그림 9 > 매일기도학교 0 주차 공지사항 예시 - (2)

(3) 이번 2023년 하반기 매일기도학교 연합기도회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화, 수 저녁 9:30 - zoom 온라인 기도회 / 목 저녁 8시 - 오프라인, 위드유 기도회)

(4) 연합기도회는 주 1회에서 시작하여 주 2회까지 늘려가게 됩니다.

(5) 기도 시간은 최대 30분 내외인데, 연합기도회 시간도 10분에서 30분 내외까지 차츰 늘려가게 됩니다.

(6) 만약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연합 기도회에 참여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추후에 개인기도과제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시간을 지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3. 연합 기도회 후 그룹 모임

(1) 신청서 작성하실 때, 지정하신 날에 연합 기도회 후 그룹 모임을 진행합니다.

(2) 그룹장의 인도를 따라, 매일기도학교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점을 물어보실 수 있고, 기도제목을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3) 이미 아시는 일정대로 화, 수는 zoom으로 진행하고, 목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비대면 연합 기도회 후 그룹 모임 공지

4. 개인기도과제

(1) 개인기도과제는 5주차부터 시작됩니다.

(2) 개인기도과제는 연합기도회에서 기도했던 내용을 가지고 혼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돕는 영상을 틀어놓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 자리에서 혼자 기도합니다.

→ 개인기도과제를 위한 공지

< 그림 10 > 매일기도학교 0 주차 공지사항 예시 - (3)

(3) 개인 기도 후에는 반드시 개인기도과제 질문에 답을 하셔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4) 개인기도과제는 5주차부터 주 1회에서 시작하여 주 2회까지 늘려가게 됩니다.

(5) 개인기도과제도 연합기도회와 동일하게 15분 내외로 시작하여 30분 내외까지 시간을 늘려가게 됩니다.

4. 각자 신청하신 연합기도회 시간에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요일 혹은 주차에 보충하시면 됩니다.

5. 개인기도과제도 마찬가지로, 다른 주차에 보충하시면 됩니다.

→ 비대면 연합기도회에 미참석시 보충 방법 공지

→ 개인기도과제 미제출시 보충 방법 공지

둘째, 매일기도학교 1주차 강의 내용 요약³⁵

① 본 강의는 “매일기도학교 1강:기도를 배워봅시다.” 라는 것과 교제가 몇 페이지인지 확인시켜주어 수강자가 교제를 보면서 강의를 시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② 먼저 수강자에게 “기도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며 강의를 시작한다. 그리고 질문 2개를 이어서 한다. 첫 번째 질문은 “삶에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때는 언제이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비정기적으로 기도할 때는 언제이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다.

³⁵ 배석현, “매일기도학교 1번째 강의”, 「 장석교회청년부 」 (2021), <https://www.youtube.com/watch?v=8g-jQxEF8Vs&authuser=0> [2024년 2월 2일 최종 접속]

수강자는 이 질문에 답을 함으로써 자신이 기도생활에 투자하는 시간과 횟수를 점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의 기도생활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할 때는 잠시 영상을 멈춰 놓고, 질문에 답을 하는 시간을 스스로 갖도록 유도한다.

③ 이어서 마태복음 6장 5절~8절 말씀³⁶을 읽는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강조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질문한 뒤 이 또한 잠시 영상을 멈춰 놓고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유도한다.

④ 그리고 마태복음 6장 5절~8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중요하게 언급하신 내용 2가지를 정리하여 설명한다. 먼저 첫째로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강조하면서, 기도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과장하거나,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둘째로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중심으로 기도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함을 강조한다.

⑤ 마지막으로 구글 클래스룸에 올라가 있는 강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강의를 마친다.

(3) 2 주차

2 주차에는 매일기도학교 2강이 진행되며 비대면 연합 기도회와 개인기도과제는 없다. 2주차에 진행해야 하는 공지와 2주차 강의 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다.

³⁶ 5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개역개정, 마 6:5-8)

첫째, 매일기도학교 2주차에 해야 하는 공지

① 매일기도학교 2강을 교재를 참조하여 몇 번 반복하여 듣고, 구글 클래스룸에 올라가 있는 강의 질문에 반드시 답하도록 공지한다.

② 비대면 연합 기도회가 3주차부터(다음주부터)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예정된 비대면 연합 기도회의 일정을 공지하여 다음주에 수강자가 참여해야 할 비대면 연합 기도회 시간을 상기시킨다.

③ 더불어 비대면 연합 기도회 후 그룹 모임이 진행되며 자신이 지정한 요일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필히 공지한다.

둘째, 매일기도학교 2주차 강의 내용 요약³⁷

① 본 강의가 매일기도학교 “2강:하나님과 우리” 라는 것과 교제 몇 페이지인지 확인시켜주어 수강자가 교제를 보면서 강의를 시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② 먼저 지난주 공부했던 “매일기도학교 1강:기도를 배워봅시다” 를 간단히 복습한다.

③ “매일기도학교 2강:하나님과 우리” 는 주기도문의 첫 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에 관한 것인데, 강의는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순으로 설명하며 진행된다. 예수님께서서는 여러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모범기도문’ 으로는 주기도문이 유일하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고, 주기도문의 기도를 따라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강조한다.

³⁷ 배석현, “매일기도학교 2번째 강의”, 「장석교회청년부」 (2021), <https://www.youtube.com/watch?v=eer12ELVXNO&authuser=0> [2024년 2월 2일 최종 접속]

④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심을 하나하나 생각하도록 이끄시면서, 기도의 대상부터 분명하게 하고 기도를 시작할 것을 가르치셨다는 내용을 잘 설명한다.

⑤ “아버지” 를 설명하면서는 수강자가 하나님을 너무 어색하게 여기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혹은 덜 사랑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분으로 여기지는 않는지 확인하도록 독려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나의 아빠” 로 받아들이도록 유도한다.

⑥ “우리” 를 설명하면서는 하나님이 나만을 생각하시는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시대와 모든 인종, 모든 계층의 장벽을 넘어서는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설명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함을 강조한다.

⑦ “하늘에 계신” 을 설명하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나의, 우리의 아버지” 이심을 고백할 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너무 친근하게만 여긴 나머지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래서 인간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초월적 존재라는 사실을 놓칠 수 있음을 주지시킨다. 그리고 기도의 첫 머리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 두렵고 떨리는 경외의 마음을 가져야 함을 강조한다.

⑧ 마지막으로 구글 클래스룸에 올라가 있는 강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강의를 마친다.

(4) 3 주차

3 주차에는 매일기도학교 3강이 진행되며 비대면 연합 기도회가 시작되는 주간이다. 개인기도과제는 없다. 3주차에 진행해야 하는 공지와 3주차 강의 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일기도학교 3주차에 해야 하는 공지

① 매일기도학교 3강을 교제를 참조하여 몇 번 반복하여 듣고, 구글 클래스룸에 올라가 있는 강의 질문에 반드시 답하도록 공지한다.

② 비대면 연합 기도회가 이번 주부터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예정된 비대면 연합 기도회의 일정을 공지하여 수강자가 참여해야 할 비대면 연합 기도회 시간을 상기시키고, 반드시 참여할 것과 시간에 늦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

③ 더불어 비대면 연합 기도회 후 그룹 모임이 진행되며 자신이 지정한 요일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필히 공지한다.

둘째, 매일기도학교 3주차 강의 내용 요약³⁸

① 본 강의가 매일기도학교 “3강:하나님 바로 알기” 라는 것과 교제 몇 페이지인지 확인시켜주어 수강자가 교제를 보면서 강의를 시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② “3강:하나님 바로 알기” 는 주기도문의 두번째 문장,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에 관한 것이다.

③ 먼저 “이름” 이 갖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유도한 후 “이름” 은 그저 누군가를 가리키는 기능 이상의 “의미” 를 지닌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³⁸ 배석현, “매일기도학교 3번째 강의”, 「장석교회청년부」 (2021), <https://www.youtube.com/watch?v=N-4eDqhVLWw&authuser=0> [2024년 2월 2일 최종 접속]

④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분명하게 고백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하면서, 오늘 3장을 통해 살펴보는 기도문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가 그 연장선에 있는 기도문인 것을 강조한다. 특별히 “거룩하게 하시며”라는 기도문의 뜻은 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께 그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라는 의미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서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고, 경배를 올려드릴 것을 가르치신 것이다.

⑤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 6가지 하나님의 복합명칭을 활용한다. 그것은 여호와 마카데쉬(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레 20:8³⁹), 여호와 삼마(임재하시는 여호와-겔 48:35⁴⁰), 여호와 라파(치유하시는 하나님-출 15:26⁴¹), 여호와 이레(준비하시는 하나님-창 22:14⁴²), 여호와 넛시(승리하시는 하나님-출 17:15⁴³), 여호와 로이(목자되신 하나님-시 23:1~2⁴⁴)이다. 수강생들이 이 복합명칭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과 간구를 올려드리도록 독려한다.

⑥ 마지막으로 구글 클래스룸에 올라가 있는 강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함을

³⁹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레 20:8)

⁴⁰ 그 사방의 합계는 만 팔천 척이라 그 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삼마라 하리라(겔 48:35)

⁴¹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출 15:26)

⁴²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창 22:14)

⁴³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넛시라 하고(출 17:15)

⁴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다(시 23:1~2)

강조하면서 강의를 마친다.

(5) 4 주차

4 주차에는 매일기도학교 4강이 진행되며 비대면 연합 기도회가 1번 있는 주간이다. 개인기도과제는 없지만 다음주부터 개인기도과제가 시작된다. 4주차에 진행해야 하는 공지와 4주차 강의 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일기도학교 4주차에 해야 하는 공지

① 매일기도학교 4강을 교제를 참조하여 몇 번 반복하여 듣고, 구글 클래스룸에 올라가 있는 강의 질문에 반드시 답하도록 공지한다.

② 비대면 연합 기도회가 이번 주에도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예정된 비대면 연합 기도회의 일정을 공지하여 수강자가 참여해야 할 비대면 연합 기도회 시간을 상기시키고, 반드시 참여할 것과 모임시간에 늦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

③ 더불어 비대면 연합 기도회 후 그룹 모임이 진행되며 자신이 지정한 요일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필히 공지한다.

④ 추가적으로 다음주부터 개인기도과제가 시작된다는 사실도 미리 강조해둔다.

둘째, 매일기도학교 4주차 강의 내용 요약⁴⁵

① 본 강의가 매일기도학교 “4강: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기” 라는 것과 교제 몇 페이지인지 확인시켜주어 수강자가 교제를 보면서 강의를 시청할 수 있도록

⁴⁵ 배석현, “매일기도학교 4번째 강의”, 「장석교회청년부」 (2021), <https://www.youtube.com/watch?v=11gTZtwORLk&authuser=0> [2024년 2월 2일 최종 접속]

답는다.

② “4강: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기” 는 주기도문의 세번째 문장,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에 관한 것이다.

③ 먼저 “나라” 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도록 유도한 후 “나라” 에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 이 3가지 필수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④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인가?” 라고 질문한 뒤 하나님의 영토는 나의 삶의 자리,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학교,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전체(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기술, 모든 가정, 교육, 교회 등),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과 국제 관계(국제정치, 국제경제, 어딘가 존재하는 인권의 사각지대, 기아와 재난과 전쟁과 폭력이 일어나는 모든 곳), 모든 우주적 공간들과 모든 영적 세계가 하나님의 영토라는 점을 강조한다.

⑤ 또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구인가?” 라고 질문한 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 이라고 설명한다.

⑥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 후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과 통치, 역사하심” 이라고 대답한다.

⑦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할 때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나의 삶의 자리,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학교,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전체(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기술, 모든 가정, 교육, 교회 등),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과 국제관계 속에(국제정치, 국제경제, 어딘가 존재하는 인권의 사각지대, 기아와 재난과 전쟁과 폭력이 일어나는 모든 곳) 그리고 모든 우주적 공간들과 모든 영적 세계에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함을 설명한다.

⑧ 마지막으로 구글 클래스룸에 올라가 있는 강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강의를 마친다.

(6) 5 주차

5 주차에는 매일기도학교 5강이 진행되며 비대면 연합 기도회 1번과 개인기도과제 1번이 있는 주간이다. 5주차에 진행해야 하는 공지와 5주차 강의 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일기도학교 5주차에 해야 하는 공지

① 매일기도학교 5강을 교제를 참조하여 몇 번 반복하여 듣고, 구글 클래스룸에 올라가 있는 강의 질문에 반드시 답하도록 공지한다.

② 비대면 연합 기도회가 이번 주에도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예정된 비대면 연합 기도회의 일정을 공지하여 수강자가 참여해야 할 비대면 연합 기도회 시간을 상기시키고, 반드시 참여할 것과 시간에 늦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

③ 더불어 비대면 연합 기도회 후 그룹 모임이 진행되며 자신이 지정한 요일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필히 공지한다.

④ 또 이번주부터 개인기도과제를 1번 이상 해야 하며, 개인기도과제는 이미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된 개인기도과제 영상을 활용하여, 비대면 연합 기도회에 참여하듯 혼자 기도해야 한다는 것과 기도 후에는 반드시 구글 클래스룸에 올라가 있는 개인기도과제 질문에 답을 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둔다.

둘째, 매일기도학교 5주차 강의 내용 요약⁴⁶

① 본 강의가 매일기도학교 “5강: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기①”이라는 것과 교재 몇 페이지인지 확인시켜주어 수강자가 교재를 보면서 강의를 시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② “5강: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기①”은 주기도문의 네번째 문장,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에 관한 것이다.

③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가르침 속에 우리는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중에 아직 이 땅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먼저 설명한다. 만약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즉각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는 의미 없는 기도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④ 다시 말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에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는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는 존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존재는 악한 사람들 그리고 귀신들과 같은 악한 영적 존재들이다.

⑤ 시편 2:1~4⁴⁷의 말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연합들과 권력자들이

⁴⁶ 배석현, “매일기도학교 5번째 강의”, 「장석교회청년부」 (2021), <https://www.youtube.com/watch?v=cIM1GjMXvWE&authuser=0> [2024년 2월 2일 최종 접속]

⁴⁷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거나 방해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⑥ 또 다니엘 10:12~14⁴⁸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께 즉시 전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에도 즉시 응답하셨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하기 위해 다니엘에게 가던 중에 페르시아 왕국을 다스리는 악한 영적 존재에게 막혀 3주동안이나 하나님의 응답을 다니엘에게 전달하지 못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처럼 많은 악한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막거나 혹은 방해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⑦ 결론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는 기도문을 통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를 위해 간절히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⑧ 마지막으로 구글 클래스룸에 올라가 있는 강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강의를 마친다.

서로 피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시 2:1~4)

⁴⁸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십일 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 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단 10:12~14)

< 그림 11 > 매일기도학교 주초 공지 예시 1 (카카오톡 및 메시지, 월요일 공지)

<p><공지사항> - 5 주차</p> <p>1. 매일기도학교 5주차가 시작되었습니다.</p>	<p>→ 1. 해당 주차 안내</p>
<p>2.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셔서 교재를 참고하시면서 "매일기도학교 5강 : 하나님의 뜻 이루어 드리기 ①"를 주의 깊게 봐주세요. (최소 1일 1강 !!)</p>	<p>→ 2. 해당주차 강의 제목</p>
<p>3.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 아래 링크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p>	<p>→ 3. 강의 수강 후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한다는 공지</p>
<p>4. 각자 해당하는 연합 기도회 일정을 확인하시고, 꼭 참석해주세요. 절대 늦으시면 안 됩니다.</p>	<p>→ 4. 해당 주차 비대면 연합기도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공지</p>
<p>5. 이번 주간 연합기도회는 최소 1번 이상, 개인기도과제 1번 이상 하셔야 합니다.</p>	<p>→ 5. 해당 주차 비대면 연합 기도회, 개인기도 과제 참여 해야 하는 필수 횟수 공지</p>
<p>6.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저녁 9:30 비대면 연합 기도회는 zoom을 통해 진행되고 링크는 미리 공지사항과 함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p>	<p>→ 6. 해당 주차 비대면 연합 기도회, 개인기도 과제 참여 해야 하는 필수 횟수 공지</p>
<p>7. zoom을 통해 이루어지는 비대면 연합 기도회(화, 수, 목)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녁 9시부터 카톡방 공지를 잘 확인해주세요~!</p>	<p>→ 7. 비대면 연합 기도회를 위한 공지 시간 공지</p>
<p>8. 이번주도 비대면 연합 기도회 후 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요일에 반드시 참여해주세요.</p>	<p>→ 8. 비대면 연합 기도회 후 그룹 모임 공지</p>
<p>9. 이번주부터는 개인기도 과제가 있습니다. 영상을 틀어 놓고 비대면 연합 기도회 처럼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개인기도과제 질문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p>	<p>→ 9. 개인기도과제 공지</p>
<p>10.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 꼭 성실하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삶의 자리에서 꽃 피워야 합니다!</p>	<p>→ 10. 마지막 매일기도학교 참여 독려</p>

< 그림 12 > 매일기도학교 주초 공지 예시 2 (카카오톡 및 메시지, 월요일 공지)

<연합기도회 일정>
 화요일 pm 9:30 – zoom / 카톡을 통해 공지
 수요일 pm 9:30 – zoom / 카톡을 통해 공지
 목요일 pm 8:00 – 오프라인, 워드유 기도회(교회)

<매일기도학교 5주차 구글 클래스룸 링크>
<https://classroom.google.com/c/MjAyNzExODZzMzE1/m/MjQ4OTk3ODYxNzE4/details>

강의	연합기도회 (zoom or 오프라인)		영상 랜선 기도회		총 횟수
0					0
1					0
2					0
3	연합기도회(2과)				1
4	연합기도회(3과)				1
5	연합기도회(4과)		개인기도과제(1과-4과)		2
6	연합기도회(5과)		개인기도과제(1과-5과)		2
7	연합기도회(6과)		개인기도과제(1과-6과)		2
8	연합기도회(7과)	연합기도회(7과)	개인기도과제(1과-7과)		3
9	연합기도회(8과)	연합기도회(8과)	개인기도과제(1과-8과)		3
10	연합기도회(9과)	연합기도회(9과)	개인기도과제(1과-9과)	개인기도과제(1과-9과)	4
	연합기도회(10과)	연합기도회(10과)	개인기도과제(1과-10과)	개인기도과제(1과-10과)	4

→ 비대면 연합 기도회 일정

→ 해당 주차 “매일기도학교” 구글 클래스룸 링크

→ 해당 주차 일정 및 향후 일정 공지 이미지

(7) 6 주차

6 주차에는 매일기도학교 6강이 진행되며 비대면 연합 기도회 1번과 개인기도과제 1번이 있는 주간이다. 6주차에 진행해야 하는 공지와 6주차 강의 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일기도학교 6주차에 해야 하는 공지

① 매일기도학교 6강을 교재를 참조하여 몇 번 반복하여 듣고, 구글 클래스룸에 올라가 있는 강의 질문에 반드시 답하도록 공지한다.

② 비대면 연합 기도회가 이번 주에도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예정된 비대면 연합 기도회의 일정을 공지하여 수강자가 참여해야 할 비대면 연합 기도회 시간을 상기시키고, 반드시 참여할 것과 시간에 늦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

③ 더불어 비대면 연합 기도회 후 그룹 모임이 진행되며 자신이 지정한 요일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필히 공지한다.

④ 또 이번주부터 개인기도과제를 1번 이상 해야 하며, 개인기도과제는 이미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된 개인기도과제 영상을 활용하여, 비대면 연합 기도회에 참여하듯 혼자 기도해야 한다는 것과 기도 후에는 반드시 구글 클래스룸에 올라가 있는 개인기도과제 질문에 답을 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준다.

⑤ 또 2주후(8주차)부터는 비대면 연합 기도회를 일주일에 2번 이상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공지하고, 반드시 시간을 미리 빼두어야 함을 강조한다.

둘째, 매일기도학교 6주차 강의 내용 요약⁴⁹

① 본 강의가 매일기도학교 “6강: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기②” 라는 것과 교재 몇 페이지인지 확인시켜주어 수강자가 교재를 보면서 강의를 시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② “6강: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기②” 는 주기도문의 네번째 문장,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에 관한 것이다.

⁴⁹ 배석현, “매일기도학교 6번째 강의”, 「장석교회청년부」 (2021), <https://www.youtube.com/watch?v=ZMzTsFHa0p8&authuser=0> [2024년 2월 2일 최종 접속]

③ 먼저 지난주에 매일기도학교 5강을 통해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도록 유도한다.

④ 6강에서는 이 땅에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도록 한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중 가르쳐 주신 모든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 나타난 모든 교훈들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⑤ 또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 드려야 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 라는 것을 강조한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당시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과 권세자들의 타락을 비판하셨고, 불의한 경제 시스템을 비판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폭력과 전쟁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고, 사랑과 용서와 인내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다.

⑥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는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단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함을 강조한다.

⑦ 마지막으로 구글 클래스룸에 올라가 있는 강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강의를 마친다.

(8) 7 주차

7 주차에는 매일기도학교 7강이 진행되며 비대면 연합 기도회 1번과 개인기도과제 1번이 있는 주간이다. 7주차에 진행해야 하는 공지와 7주차 강의 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일기도학교 7주차에 해야 하는 공지

① 매일기도학교 7강을 교재를 참조하여 몇 번 반복하여 듣고, 구글 클래스룸에 올라가 있는 강의 질문에 반드시 답하도록 공지한다.

② 비대면 연합 기도회가 이번 주에도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예정된 비대면 연합 기도회의 일정을 공지하여 수강자가 참여해야 할 비대면 연합 기도회 시간을 상기시키고, 반드시 참여할 것과 시간에 늦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

③ 더불어 비대면 연합 기도회 후 그룹 모임이 진행되며 자신이 지정한 요일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필히 공지한다.

④ 또 이번주부터 개인기도과제를 1번 이상 해야 하며, 개인기도과제는 이미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된 개인기도과제 영상을 활용하여, 비대면 연합 기도회에 참여하듯 혼자 기도해야 한다는 것과 기도 후에는 반드시 구글 클래스룸에 올라가 있는 개인기도과제 질문에 답을 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준다.

⑤ 또 다음주(8주차)부터는 비대면 연합 기도회를 일주일에 2번 이상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공지하고, 반드시 시간을 미리 빼두어야 함을 강조한다.

둘째, 매일기도학교 7주차 강의 내용 요약⁵⁰

① 본 강의가 매일기도학교 “7강:하나님을 나의 삶에 초청하라” 라는 것과 교재 몇 페이지인지 확인시켜주어 수강자가 교재를 보면서 강의를 시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② “7강:하나님을 나의 삶에 초청하라” 는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문장,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에 관한 것이다.

⁵⁰ 배석현, “매일기도학교 7번째 강의”, 「장석교회청년부」 (2021), <https://www.youtube.com/watch?v=nKy6aanSmhA&authuser=0> [2024년 2월 2일 최종 접속]

③ 먼저 지금까지 진행한 1강~6강까지의 내용을 상기해 보도록 유도한다.

④ 그리고 1강~6강까지 배운 내용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까지의 기도는 마태복음 6:33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나의 필요를 먼저 하나님께 구하기 바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유일한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 을 토대로 볼 때 잘못된 기도이고, 반드시 먼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기도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도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마음껏 아뢰어 드릴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며 응답하실 것이라고 설명한다.

⑥ 그러나 야고보서 4:3⁵¹의 말씀처럼 정욕으로 잘못 기도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강조한다.

⑦ 마지막으로 구글 클래스룸에 올라가 있는 강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강의를 마친다.

(9) 8 주차

8 주차에는 매일기도학교 8강이 진행되며 비대면 연합 기도회 2번과 개인기도과제 1번이 있는 주간이다. 8주차에 진행해야 하는 공지와 8주차 강의 내용

⁵¹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약 4:3)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일기도학교 8주차에 해야 하는 공지

① 매일기도학교 8강을 교재를 참조하여 몇 번 반복하여 듣고, 구글 클래스룸에 올라가 있는 강의 질문에 반드시 답하도록 공지한다.

② 비대면 연합 기도회가 2번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예정된 비대면 연합 기도회의 일정을 공지하여 수강자가 참여해야 할 비대면 연합 기도회 시간을 상기시키고, 반드시 참여할 것과 시간에 늦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

③ 더불어 비대면 연합 기도회 후 그룹 모임이 진행되며 자신이 지정한 요일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필히 공지한다.

④ 또 이번주에도 개인기도과제를 1번 이상 해야 하며, 개인기도과제는 이미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된 개인기도과제 영상을 활용하여, 비대면 연합 기도회에 참여하듯 혼자 기도해야 한다는 것과 기도 후에는 반드시 구글 클래스룸에 올라가 있는 개인기도과제 질문에 답을 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

둘째, 매일기도학교 8주차 강의 내용 요약⁵²

① 본 강의가 매일기도학교 “8강:마음의 쓴뿌리로부터 자유하라” 라는 것과 교재 몇 페이지인지 확인시켜주어 수강자가 교재를 보면서 강의를 시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② “8강:마음의 쓴뿌리로부터 자유하라” 는 주기도문의 여섯번째 문장,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⁵² 배석현, “매일기도학교 8번째 강의”, 「장석교회청년부」 (2021), <https://www.youtube.com/watch?v=UTXMny4NR-U&authuser=0> [2024년 2월 2일 최종 접속]

주시고”에 관한 것이다.

③ 먼저 지난 강의 7장에서 주기도문의 앞부분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이고, 뒷부분은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강의를 시작한다.

④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는 말 그대로 “용서”에 대한 내용이며, “용서”는 내가 용서해주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 나를 위한 것임을 강조한다. 만약 용서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준 상처로부터 내가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⑤ 그리고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받는 삶을 살아야 하며, 용서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허물과 죄를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⑥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는 기도문이 내가 남을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를 용서하신다는 조건적인 기도가 아니고, 반드시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강조의 표현임을 설명한다.

⑦ 마지막으로 구글 클래스룸에 올라가 있는 강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강의를 마친다.

(10) 9 주차

9 주차에는 매일기도학교 9강이 진행되며 비대면 연합 기도회가 2번, 개인기도과제 1번이 있는 주간이다. 9주차에 진행해야 하는 공지와 9주차 강의 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일기도학교 9주차에 해야 하는 공지

① 매일기도학교 9강을 교제를 참조하여 몇 번 반복하여 듣고, 구글 클래스룸에 올라가 있는 강의 질문에 반드시 답하도록 공지한다.

② 비대면 연합 기도회가 2번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예정된 비대면 연합 기도회의 일정을 공지하여 수강자가 참여해야 할 비대면 연합 기도회 시간을 상기시키고, 반드시 참여할 것과 시간에 늦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

③ 더불어 비대면 연합 기도회 후 그룹 모임이 진행되며 자신이 지정한 요일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필히 공지한다.

④ 또 이번주에도 개인기도과제를 1번 이상 해야 하며, 개인기도과제는 이미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된 개인기도과제 영상을 활용하여, 비대면 연합 기도회에 참여하듯 혼자 기도해야 한다는 것과 기도 후에는 반드시 개인기도과제 질문에 답을 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준다.

⑤ 마지막으로 다음주부터는 개인기도과제를 2번 이상 해야 하며, 이제 곧 모든 과정이 끝나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는 공지를 한다. 그리고 삶에 기도를 뿌리내리라는 격려의 말도 덧붙인다.

둘째, 매일기도학교 9주차 강의 내용 요약⁵³

① 본 강의가 매일기도학교 “9강:주여 우리를 보호하소서” 라는 것과 교제 몇 페이지인지 확인시켜주어 수강자가 교제를 보면서 강의를 시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⁵³ 배석현, “매일기도학교 9번째 강의”, 「장석교회청년부」 (2021), https://www.youtube.com/watch?v=1_0bXNWv_14&authuser=0 [2024년 2월 2일 최종 접속]

② “9강:주여 우리를 보호하소서” 는 주기도문의 일곱 번째 문장,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에 관한 것이다.

③ 먼저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라는 기도문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시험이란 고난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또 인간이 겪는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에 또 사탄 마귀의 유혹 혹은 괴롭힘으로 인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올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신뢰하면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④ 또 “악에서 구하소서” 라는 기도문을 통해 이 세상 모든 유혹(재물의 유혹, 음란의 유혹, 불법의 유혹, 거짓의 유혹, 게으름의 유혹, 쉽게 절망하고 낙담하도록 스스로를 내버려두는 유혹 등)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유혹에 취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그리고 항상 간절히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글 클래스룸에 올라가 있는 강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강의를 마친다.

(11) 10 주차

10 주차에는 매일기도학교 10강이 진행되며 비대면 연합 기도회 2번과 개인기도과제 2번이 있는 주간이다. 10주차에 진행해야 하는 공지와 10주차 강의 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일기도학교 10주차에 해야 하는 공지

① 매일기도학교 10강을 교제를 참조하여 몇 번 반복하여 듣고, 구글 클래스룸에 올라가 있는 강의 질문에 반드시 답하도록 공지한다.

② 비대면 연합 기도회가 2번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예정된 비대면 연합 기도회의 일정을 공지하여 수강자가 참여해야 할 비대면 연합 기도회 시간을 상기시키고, 반드시 참여할 것과 시간에 늦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

③ 더불어 비대면 연합 기도회 후 그룹 모임이 진행되며 자신이 지정한 요일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필히 공지한다.

④ 또 이번주부터는 개인기도과제를 2번 이상 해야 하며, 개인기도과제는 이미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된 개인기도과제 영상을 활용하여, 비대면 연합 기도회에 참여하듯 혼자 기도해야 한다는 것과 기도 후에는 반드시 구글 클래스룸에 올라가 있는 개인기도과제 질문에 답을 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둔다.

⑤ 마지막으로 이제 곧 모든 과정이 끝나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는 공지를 한다. 그리고 삶에 기도를 뿌리내리라는 격려의 말도 덧붙인다.

둘째, 매일기도학교 10주차 강의 내용 요약⁵⁴

① 본 강의가 매일기도학교 “10강: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것과 교제 몇 페이지인지 확인시켜주어 수강자가 교제를 보면서 강의를 시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② “10강: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는 주기도문의 여덟 번째 문장이자 마지막 문장,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에 관한 것이다.

③ 먼저 지금까지 배운 주기도문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⁵⁴ 배석현, “매일기도학교 10번째 강의”, 「장석교회청년부」 (2021), https://www.youtube.com/watch?v=3DCid_xXOVA&authuser=0 [2024년 2월 2일 최종 접속]

④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은 기도의 모든 내용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을 설명한다. 결국,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이다.

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글 클래스룸에 올라가 있는 강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강의를 마친다.

(12) 11 주차

11 주차에는 강의가 없고 비대면 연합 기도회 2번과 개인기도과제 2번이 있는 주간이다. 이번 주차가 끝나면 매일기도학교 전제 과정이 끝난다. 11주차에 진행해야 하는 공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매일기도학교 11주차에 해야 하는 공지

① 이번 주간은 매일기도학교 마지막 주간이며, 강의가 없다는 사실을 공지한다.

② 마지막 비대면 연합 기도회가 2번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예정된 비대면 연합 기도회의 일정을 공지하여 수강자가 참여해야 할 비대면 연합 기도회 시간을 상기시키고, 반드시 참여할 것과 시간에 늦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

③ 더불어 비대면 연합 기도회 후 마지막 그룹 모임이 진행되며 자신이 지정한 요일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필히 공지한다.

④ 또 이번주부터는 개인기도과제를 2번 이상 해야 하며, 개인기도과제는 이미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된 개인기도과제 영상을 활용하여, 비대면 연합 기도회에 참여하듯 혼자 기도해야 한다는 것과 기도 후에는 반드시 구글 클래스룸에 올라가 있는 개인기도과제 질문에 답을 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둔다.

⑤ 마지막으로 이제 곧 모든 과정이 끝나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는 공지를 한다. 그리고 삶에 기도를 뿌리내리라는 격려의 말도 덧붙인다.

3. 매일기도학교 비대면 연합 기도회 인도시 유의사항

첫째, 비대면 연합 기도회 인도자는 기도회 시작 30분 혹은 20분 전에 오늘 몇시에 비대면 연합기도회가 있는지 공지해야 한다. 그래서 당일 비대면 연합 기도회에 들어와야 할 참여자들이 미리 준비하고, 시간 맞춰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비대면 연합 기도회 인도자는 자기 앞에 필히 스톱워치를 둔다. 비대면 기도회는 대면 기도회와 달리 주변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청취할 수 없다. 대면 기도회의 경우 주변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각 기도제목마다 언제 기도가 끝나고 또 언제 새로운 기도제목으로 넘어가는지 가늠할 수 있지만, 비대면 기도회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비대면 기도회 인도자와 참여자는 각 기도제목마다 몇 분 기도할 것인지 약속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이 각 기도제목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언제 다음 기도로 넘어가는지 자기도 모르게 수시로 확인하게 되어 기도의 집중력을 심대하게 훼손할 수 있다. 인도자는 이 기도시간을 정확하게 체크하면서 비대면 기도회를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스톱워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셋째, 비대면 연합 기도회 인도자는 기도회가 시작되기 최소 10분전에 Zoom, Goole Meet, RemoteMeeting 등 온라인 화상 회의 어플을 통해 기도방을 개설한 후 모든 참여자들에게 미리 링크를 공유해야 한다. 또 인도자는 화면공유와 소리공유를

반드시 해야하고, 화면에는 “조용한 장소 확보”, “방해되는 프로그램 종료”, “화면조정”, “음량조절”, “적극적이고 진신한 마음”, “각자 아이디어, 실명으로 기도방 입장” 등 각자 비대면 기도회를 위한 컴퓨터 및 핸드폰 세팅을 할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넷째, 기도회 시작 최소 10분전 기도방을 게시할 때는 기도회가 진행될 때 틀게 될 기도음악을 미리 준비하여 틀어 놓아야 한다. 기도음악의 음량은 기도제목을 나누는 시간에는 좀 작게, “다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한 후 다같이 기도할 때에는 더 크게 세팅해야 하는데, 기도회 전에 틀어 놓는 기도음악은 기도가 진행될 때 틀 음량에 맞춰서 틀어 놓아야 한다. 그래서 비대면 기도회에 참여하기 위해 조금 일찍 들어와 있는 참여자들이 자신에게 맞도록 각자 음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고, 혹은 먼저 들어와 기도하며 준비하는 참여자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비대면 연합 기도회는 정시에 시작하거나 늦게 시작하더라도 2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여섯째, 비대면 연합 기도회를 시작할 때는 오늘 기도회가 매일기도학교 몇 과에 해당하는 기도회인지를 설명하고, 각 기도제목마다 3분씩 기도하겠다는 공지를 반드시 해야한다. 또 각자 마이크는 음소거를 하고, 화면을 반드시 켜두도록 공지한다.

일곱째, 비대면 연합 기도회를 진행할 때, 기도제목마다 나와 있는 기도문을 다함께 읽고 바로 3분 동안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되, 혹시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화면에 나와있는 기도문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여덟째, 예정된 기도시간이 다 지나면, 인도자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비대면

연합 기도회를 마친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주간 반드시 전해야하는 공지사항이 있다면 전해도 좋다.

아홉째, 비대면 연합 기도회 후 그룹 모임이 있는 사람들은 온라인 화상 회의 어플에 탑재되어 있는 소모임방을 열어주고 미리 정해진대로 그룹원들을 배정해주어 그룹모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4. 매일기도학교 참가자 설문조사

본 설문조사는 2023년 10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대한민국 서울 소재 장석교회((01884)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44길23) 청년부에서 12주간에 걸쳐 진행한 “2023년 매일기도학교”를 수료한 20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질문은 총 13개다.

<2023년 매일기도학교 수료자 만족도 설문조사>⁵⁵

본 설문조사는 매일기도학교 사역의 현황과 개선사항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것입니다. 이 설문조사는 2023년 매일기도학교 수료자를 대상으로 이루어 집니다.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⁵⁵ 본 설문조사는 본 교회 교인 20명을 대상으로 Google 설문조사를 이용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4년 1월 26일 ~ 30일까지이다.

1. "매일기도학교" 를 통해 기도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2. "매일기도학교" 를 통해 그 동안 나의 기도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3. "매일기도학교" 를 통해 평소 나의 기도가 그 내용 면에서 개인적인 간구의 비중이 너무 높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4. "매일기도학교" 를 통해 나의 기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느꼈다.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5. "매일기도학교" 를 통해 나의 개인기도 시간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느꼈다.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6. "매일기도학교" 를 통해 나의 생활 속에서 매일 기도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7. "매일기도학교" 를 통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신앙생활(기도&말씀)로는 부족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느꼈다.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8. "매일기도학교" 를 수료한 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개인 기도 시간이 더 많아졌다.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9. "매일기도학교" 를 수료한 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기도 내용이 보다 성숙하게 변화되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0. "매일기도학교" 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어떤가요?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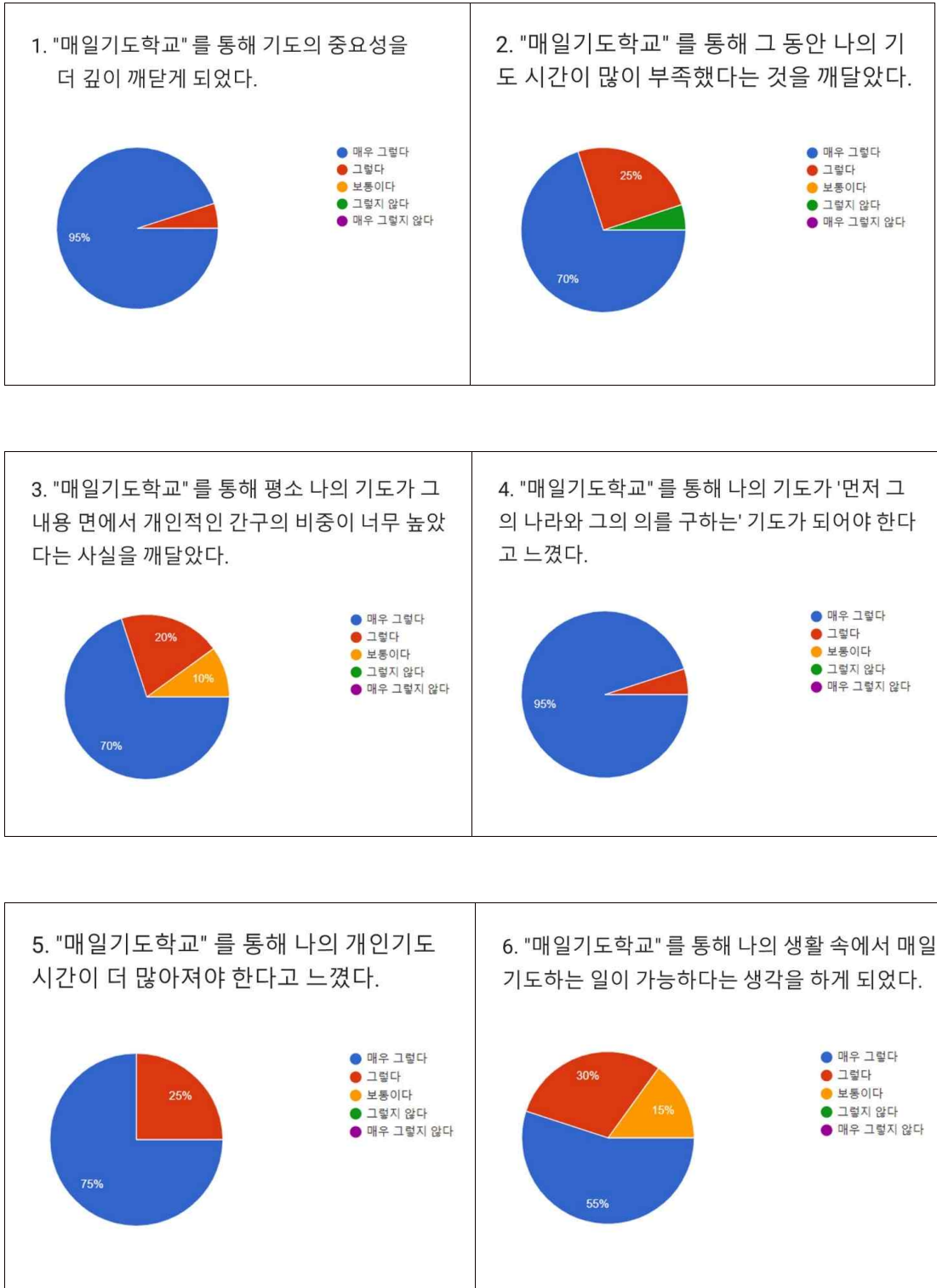
11. 매일기도학교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유익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가능한 자세히 적어주세요)

12. 매일기도학교에 참여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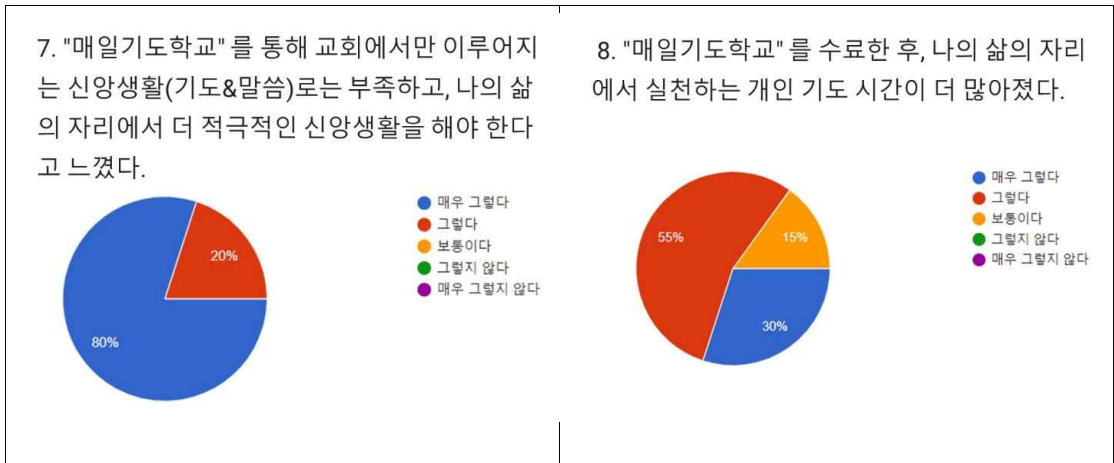
(가능한 자세히 적어주세요)

13.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 그림 13 > 2023년 매일기도학교 수료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⁵⁶



⁵⁶ 장석교회 청년부 2023년 매일기도학교 수료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표로 분석한 것이다.



위의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자면, 매일기도학교 수료자들은 대체로 “매일기도학교” 를 통해 각자의 평소 기도생활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⁵⁷, 평소 했던 기도의 내용이 너무 개인적인 간구에 치우쳐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게 해달라는 간구가 나의 기도생활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⁵⁸

⁵⁷ 설문 1), 2)의 질문에 대한 ‘매우 그렇다’, ‘그렇다’ 에 해당하는 긍정 응답이 각각 100%, 95%이다.

⁵⁸ 설문 3), 4)의 질문에 대한 ‘매우 그렇다’, ‘그렇다’ 에 해당하는 긍정 응답이 각각 90%, 100%이다.

또 수료자들은 “매일기도학교”를 통해 개인기도 생활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개인 기도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⁵⁹

그리고 수료자들은 “매일기도학교”를 통해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실제로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고 응답했다.⁶⁰ 그리고 “매일기도학교”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모든 수료자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매일기도학교”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었는지 묻는 질문에 수료자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① 어떻게 기도해야하는지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해야하는지 배웠습니다.

② 처음에 기도를 하라고 했을 땐 기도를 많이 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다는 생각때문에 기도시간이 매우 길고 싫게 느꼈었는데 지금은 기도시간이 길다는 생각도 안 하게 되었고 그 시간만큼은 다른 생각은 안하고 기도에만 집중하며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기도가 어려워서 꺼려지지 않고 나의 삶 속에 중요한 하나로 자리 잡히게 되어서 좋다.

③ 기도하는 법을 잘 몰라 늘 횡설수설 하였는데 기도의 방법을 잘 알게 되어 유익했다.

⁵⁹ 설문 5), 7)의 질문에 대한 ‘매우 그렇다’, ‘그렇다’에 해당하는 긍정 응답이 각각 100%, 100%이다.

⁶⁰ 설문 6), 8), 9)의 질문에 대한 ‘매우 그렇다’, ‘그렇다’에 해당하는 긍정 응답이 각각 85%, 85%, 85%이다.

④ 기도의 습관을 잡을 수 있었다는 것과, 기도의 깊이가 깊어 졌다는 것

⑤ 나의 개인적인 간구들로 먼저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방향이 바뀐 점이 가장 큰 유익인 것 같습니다. 기도의 시간도 이전에 비해서 늘기도 했고요!

⑥ 공동체에 소속되어 같이 기도할 수 있어 감사했고, 더없이 따뜻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끌어주신 목사님과 전도사님, 영실이를 비롯한 팀원들에게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⑦ 기도는 어떻게 하는건지 한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었는데 기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 것 만으로도 큰 유익이 있다.

⑧ 좋은 말씀공부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더 배워야하겠다고 다짐합니다.

⑨ 수학의 정석처럼 기도의 정석을 머리 속에 한 권 저장한 느낌이다. 기도가 어려울 때마다 내 기도예 이렇게 저렇게 대입하고 응용해보는, ‘정말 내가 매일 기도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경험 또한 자신감처럼 남아서 정말 매일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⑩ 받은 의무적이긴 했지만 기도하는 자리에 더 많이 나아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자주 나눌 수 있었다는 게 좋았고, 특히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 마음이 조금 더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⑪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야하는지 알게 되어서 기도의 방향이 분명해진 부분

⑫ 삶에서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전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⑬ 주기도문의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서 기도의 방향성을 알게 된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⑭ 가장 크게는 기도의 내용이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이전에 기도할 땐 무작정 간구의 기도를 하곤 했었는데, 주기도문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기억하며 인정하는 기도가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적인 간구의 기도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이 올바른 간구인지 물어보게 되고 나의 간구가 하나님 뜻에 더 합한 간구가 되길 구하게 됐습니다.

⑮ 하나님의 의와 그 뜻을 구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다는 점과 일상 속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매일기도학교 수료 후에도 단 10분이라도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이 생기고 실제로 기도를 해내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유익이라 생각합니다.

⑯ 기도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⑰ 주기도문을 무작정 외우기만했는데 이 보다 더 완벽한 기도는 없음을 알게 됐고 기도 방법에 대해 알게 되어 유익했다

⑱ 습관같은 기도인데 기도를 하며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간절함이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매일기도학교”에 참여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는

① 매일기도학교 소모임을 운영하면서 나눔을 진행한 것이 서로 독려도 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7-8명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형식보다는 일방향적인 나눔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시간도 부족해서 아쉬웠습니다. 나눔 인원을 4-5명으로 콤팩트하게 진행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② 과제가 많이 밀린 친구들을 위해 매일기도학교 일정 중간에 특별 과제기간을 정해서 과제를 짝 정리하고 다시 독려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③ 개인기도과제를 위해 꾸준히 기도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습관을 갖는것이 어려워 개인적으로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④ 아직까지는 30~40분이상 기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⑤ 온라인으로 영상을 틀어놓고 기도하는게 처음에는 적응이 안됐지만 익숙해지면서 그것마저도 괜찮았습니다.

⑥ 매일 기도해야한다는 것을 알지만 일상 속에서 마지막에는 1시간이라는 시간을 내게 되는데, 이 시간이 한번 밀리면 이제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들어 끝까지 수료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생기는 점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매일기도학교가 정말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기도하는 시간을 내는 습관을 기르는 것에 방향성이 있다면 매일 20분~30분씩 쌓아가는 방향이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⑦ 기도하는 습관이 잡혀있지 않아 현장이 아닌 온라인으로 기도할 때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⑧ 강의가 너무 짧아서 아쉬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적어달라는 질문에는

① 매일기도학교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② 모두가 매일기도학교를 수료했으면 좋겠다! 매일기도학교 덕분에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얻게 되어서 너무 좋았다! 감사합니다!

③ 저의 끈기와 노력이 부족하구나...

④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⑤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들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많이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세요! 늘 감사합니다.

⑥ 매일기도학교 과제는 처음엔 어려운 게 많았지만 천천히 배우고 하나님안에서 말씀 공부를 배웠고 간절히 기도공부를 하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⑦ 목사님 전도사님 또 기도회 유지에 힘써주는 다른 청년 선후배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나칠 수 있었던 이 기도회에 용기의 클릭을 하게 마음의 용기를 딱 맞는 타이밍에 불러 넣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⑧ 매번 청년들을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 훈련들을 통해 조금씩 저 스스로도 성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있을 훈련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겠습니다!

⑨ 감사합니다!

⑩ 이번 기도훈련을 통해 확실히 삶의 자리에서 더 기도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⑪ 기도학교를 준비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⑫ 고생하셨습니다!!

V. 결론

A. 결론 및 요약

현재 한국 기독교는 위기에 처해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3년말, 2024년 초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20대, 30대 종교인구가 2017년과 비교하여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신교의 경우 20대~40대 개신교인이 최근 10년간 절반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⁶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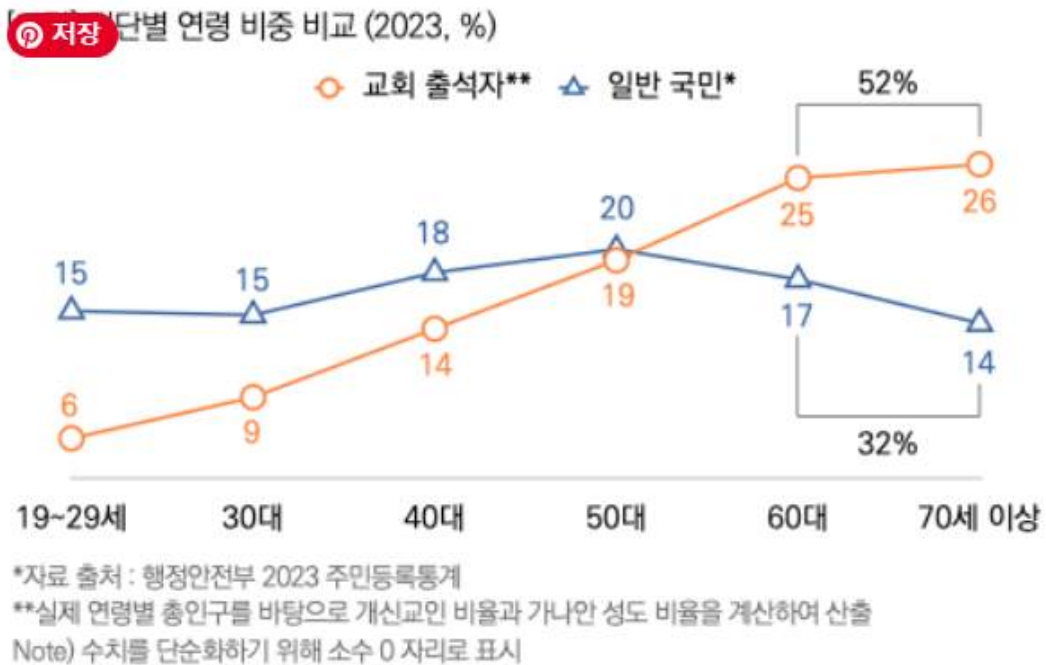
< 표 18 > 2017년, 2023년 성별, 연령별 종교인 분포 변화 (만 19세 이상, %)



⁶¹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 통계,” 「 목회데이터연구소 」, 224 (2024),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108 [2024.1.30 최종 접속]

또 교회 출석자들의 연령을 조사한 결과 60대 이상인 교인 비중이 현저히 높고, 반대로 40대 이하 젊은층들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⁶²

< 표 19 > 집단(교회 출석자, 일반 국민)별 연령 비중 비교 (2023, %)



또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후인 2067년 대한민국 인구수는 현재 인구수의 약 75%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⁶³

그리고 그 추이가 계속 이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그 숫자는 점점 더 떨어지게 될

⁶² Ibid.

⁶³ 김진, “인구감소 시작, 인구통계로 본 대한민국 인구의 미래”, 「통계청 통계교육원」, (2019), https://sti.kostat.go.kr/window/2019a/main/2019_sum_8.html [2024.1.30 확인]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약 40년 후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말은 젊은 청년들의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다는 것이다.⁶⁴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한국교회가 점점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현재 한국의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앞으로는 더 급격하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 더불어 청년층은 그 비율이 더 축소될 것이고, 노년층의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 속도보다 교회 고령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이다.

이를 산술적으로 대략 계산해보면, 약 40년 후 1000명의 교세를 가진 교회는 500명이 되고, 100명의 교세를 가진 교회는 50명이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종교인이 비종교인이 되는 속도가 자연 인구 감소 속도보다 워낙 빠르다 보니, 40년후 교회 출석교인 숫자는 이에 훨씬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노년층 혹은 장년층은 교회에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비교적 크지만, 젊은층들은 점점 더 많은 숫자가 교회를 떠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지금 1000명 교세의 교회는 500명도 되지 않는 숫자가 모이고, 100명의 교세를 가진 교회는 50명도 안 되는 교인들이 모여 함께 예배 드리고, 신앙 생활하게 될 것이 자명하고, 그 마저도 대부분 노년층에 해당하는 교인들만 교회에 남아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40년 후 벌어질 일을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교회는 과연 이에 대비를 잘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한승훈 교수는 이런 실정에 대해 이렇게 논평했다.

⁶⁴ Ibid.

종교 참여자 가운데 젊은 세대가 줄어든다는 것은 고령층 중심의 종교적 서비스와 조직 문화가 더욱 공고하게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메시지는 더 보수화될 것이고, 의사결정 과정은 한층 권위적이 될 것이며, 젊은이들이 공동체 활동에서 얻는 효능감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⁶⁵

교회는 40년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젊은층들이 교회에 던지는 질문에 응답해야 한다. 청년들은 지금 교회가 교회 다운지 질문하고 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이 충분히 성경적인지 묻고 있다. 한국교회는 그 동안 성장주의에 매몰된 목회사역을 해온 것에 대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통회하고 회개해야 한다. 교인수를 늘려서 제자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제자를 세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세워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회는 더 교회다워져야 하며, 모든 교회 내외의 정치적인 권력다툼, 돈과 교회세습을 두고 벌어지는 모든 다툼을 그치고 깊이 통회해야한다. 교회 내외의 정의는 바로 세우고, 잘못된 일을 모두 정지해야한다. 그래야 교회가 자신있게 젊은 우리 다음세대들에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장 성경적이고, 정의롭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을만한 교회가 여기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신앙개혁”을 제안했다. 신앙개혁은 종교개혁이 라틴어 성경을 여러 언어로 번역하여 성경의 대중화를 이루었고, 이신칭의 교리 하에 성경을 재해석함으로써 성경의 잘못된 오역을 방지함으로써 일반 성도들의 자발적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활성화하여 이루어졌던 것에 착안하여, 그 동안 한국교회가 성경을 오직 성장주의적 관점으로만 해석했던 잘못을 회개하고 올바른 성경 읽기 훈련과 운동을 통해 일반 성도들의 자발적인 신앙생활을 이끌어내어

⁶⁵ “종교의 초고령화, 청년을 위한 종교는 있는가 [세상읽기]”, 「한겨레신문」, 2024년 1월 18일,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24730.html>/[2024.1.30 최종확인]>

진정한 신앙개혁을 이루내자고 주장했다.

그리고 연구자는 그 일환으로 “매일기도학교”를 개발, 제안했다. “매일기도학교”는 코로나19 이후 보편화된 온라인 영성 프로그램이다. 우리는 코로나19 3년 동안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꽃피우지 못할 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무력해질 수 있는지 깨달았다. 그래서 “매일기도학교”는 교회가 아닌 각자의 자리에서 최대 40분 이상 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프로그램이다.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을 토대로 하였고, 15분에서 40분까지 온라인으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우선 매일기도학교는 온라인 영성 훈련 프로그램이다. 코로나 19 전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은 오프라인 즉,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리는 굳게 믿어왔다. 그러나 코로나 19 사태 속에 교회 오프라인 신앙생활이 제한 받자 우리의 신앙은 갈 길을 잃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또 하나의 사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스스로 세워져있지 않았고, 사실은 굉장히 허약하며, 언제 허물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다른 이들의 시선이 의존적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매일기도학교는 다른 이들 앞에서가 아닌 철저하게 혼자, 현장이 아닌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디자인했다. 온라인 영성 훈련 프로그램인 매일기도학교를 통해 성도들은 자신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다른 이들 앞에 보여지는 자신의 신앙 좋은 모습에 얼마나 얽매어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더 진실한 기도의 자리, 신앙생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앞으로 이와 같은 온라인 영성 훈련 프로그램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을 스스로 보다 더 정확하게 평가하고, 스스로

키워내어, 보다 더 자발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성도들을 훈련해야 한다. 이런 시도들을 통해 한국교회의 신앙개혁운동이 보다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본다.

B. 제언

연구자는 코로나19가 창궐하던 2020년 초 겨울을 잊을 수 없다. 그 때 연구자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여러 날 보냈다. 이리다 한국교회가 다 무너져버리는 것 아닌가하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3년이 지나자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세상은 급격하게 변하지 않았고, 그들이 목놓아 외쳤던 “뉴노멀”은 그저 3년전 “노멀”이 되었다. 그러나 연구자의 고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그 때보다 지금 더 깊어졌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젊은층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고,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다. 또 코로나19 기간을 지내며 보여주었던 교회의 여러 모습들은 그동안 의혹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불만이 현실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제 우리 젊은 성도들은 교회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더구나 그 가운데 많은 젊은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에 잘못된 교회의 모습으로 상처받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교회를 떠나고 있다. 그리고 향후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인구 추이 변화는 한국교회를 더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이제 교회를 완전히 바꿔야한다. 어떻게 바꿔야할까? 젊은층 성도들에게 완전히 집중하여, 그들을 교회에 남게 하고, 그들을 교회로 끌어오도록 만들 수 있는 교회로 완전히 변화해야 한다. 바로 지금 이에 실패할 경우 40년 후, 50년 후, 60년 후 교회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게 될 지 모른다.

참고문헌

1. 국내서적

- 김세운, 김회권, 정현구, 「하나님 나라 복음」 서울:새물결플러스, 2017
- 김세운 「주기도문 강해」 서울:두란노아카데미, 2011
- 김영래, 「미래 교육 목회」 서울:통독원, 2010
- 김영봉, 「사권의 기도」 서울:새물결플러스, 서울: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5
- 임승규 외 6명, 『포스트 코로나』, 서울:한빛비즈, 2020
-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통신학』, 서울:통독원, 2016
- 조병호, 『통통성경 길라잡이』, 서울:통독원, 2022
- 조병호, 『통통성경 길라잡이 지도자 지침서』, 서울:통독원, 2022
- 조병호, 『통통성경 학교』, 서울:통독원, 2023
- 조병호, 『통통성경 학교 지도자 지침서』, 서울:통독원, 2023
- 조병호, 『성경과 5대제국』, 서울:통독원, 2011
- 조병호, 『성경과 고대전쟁』, 서울:통독원, 2011
- 조병호, 『신구약 중간사』, 서울:통독원, 2021
- 조병호, 『와우! 예레미야 70년』, 서울:통독원, 2016
- 조병호, 『성경통독 하나님 마음읽기』, 서울:통독원, 2023
- 조영태, 『인구 미래 공존』, 파주:북스톤, 2021
- 지용근 외 9명,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서울:규장, 2022.

2. 외국서적

Donald McGavran. Understanding of Church Growth, Grand Rapids: Eerdmans, 1980

George Hunter, The Apostolic Congregation, Nashville, TN: Abingdon, 2009

3. 번역서적

Bill Hybels,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김성녀 옮김,
서울: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1

E. M. Bounds, Power Through Prayer 『기도의 능력』, 이정운 옮김,
서울:생명의말씀사, 2008

Justo L. Gonzalez, The Story of Christianity 『중세교회사』, 엄성옥 옮김,
서울:은성출판사, 1974

Justo L. Gonzalez, The Story of Christianity 『종교개혁사』, 서영일 옮김,
서울:은성출판사, 1995

Miller, M. Rex, The Millennium Matrix, 『밀레니엄 매트릭스』, 김재영 옮김,
서울:국제제자훈련원, 2004

Larry Lea, Could you not tarry one hour? 『한시 도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김병국 옮김, 인천:도서출판 바울, 2005

Leonardo Boff, The Lord's Prayer 『주의 기도』, 김정희 옮김,
서울:한국신학연구소, 1986

Leonard Sweet, Aqua Church 『모던 시대의 교회는 가라』, 김영래 옮김,

서울:좋은씨앗, 2005

Leonard Sweet, The Gospel According to Starbucks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옮김, 서울:국제제자훈련원, 2009

4. 학술 논문

김남식, 『동행전도학』 부평: 한국전도학 연구소, 2015.

김남식, 「한국교회 프로그램식 전도의 현실과 문제, 그리고 대안」, 『신학과 실천』 46집, 2015.

김영래, 디지털 스토리텔링과 기독교교육. 신학과세계(78), 2013

5. 신문. 인터넷

<http://www.mhdata.or.kr/>

https://sti.kostat.go.kr/window/2019a/main/2019_sum_8.html

“코로나19 여파 개신교인 57% 교회 출석 안해”, 「한국일보」, 2020. 2. 27.

“인구감소 시작, 인구통계로 본 대한민국 인구의 미래”, <통계청 통계교육원>,

https://sti.kostat.go.kr/window/2019a/main/2019_sum_8.html

“종교의 초고령화, 청년을 위한 종교는 있는가 [세상읽기]”, 「한겨레신문」,
2024. 1. 18.

<https://www.youtube.com/watch?v=8g-jQxEF8Vs&authuser=0>

<https://www.youtube.com/watch?v=eer12ELVXN0&authuser=0>

<https://www.youtube.com/watch?v=N-4eDqhVLWw&authuser=0>

<https://www.youtube.com/watch?v=I1gTZtwORLk&authuser=0>

<https://www.youtube.com/watch?v=cIM1GjMXvWE&authuser=0>

<https://www.youtube.com/watch?v=ZMzTsFHa0p8&authuser=0>

<https://www.youtube.com/watch?v=nKy6aanSmhA&authuser=0>

<https://www.youtube.com/watch?v=UTXMny4NR-U&authuser=0>

https://www.youtube.com/watch?v=1_0bXNWv_14&authuser=0

https://www.youtube.com/watch?v=3DCid_xXOVA&authuser=0

매일기도학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예 힘쓰라

(사도행전 1:14하)

장석교회 청년부

<부록 : 매일기도학교 교제>

주기도문

no.	주기도문	강의제목	...
1		기도를 배워 봅시다	... 02
2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 06
3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 바로 알기	... 10
4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기	... 16
5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어 드리기 ①	... 22
6		아버지의 뜻 이루어 드리기 ②	... 28
7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현장에 초청하라	... 36
8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발목을 잡는 끈뿌리로부터 자유하라	... 45
9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여, 우리를 보호하소서	... 54
10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 61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기도를 배워봅시다!

◆ 마음열기

1. 당신이 정기적으로 기도할 때와 기도의 내용을 적어보세요.

기도할 때	주로 하는 기도 내용
① 밥 먹기 전	
② 잠자기 전	
③ 자고 일어나서	
④ 등교 혹은 출근 시간에	
⑤ 수업(직장일) 시작하기 전	
⑥	
⑦	

2. 당신이 비정기적으로 기도할 때와 기도의 내용을 적어보세요.

기도할 때	주로 하는 기도 내용
① 몸이 극도로 피곤할 때	
② 걱정이 있을 때	
③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④ 누군가가 굉장히 미울 때	
⑤ 기분이 좋을 때	
⑥ 나 자신이 싫어질 때	
⑦	
⑧	

2

◆ 내용 들여다보기

마태복음 6장 5절~8절에서 기도에 관해 주의해야 할 것 2가지를 찾아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5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나
 6 내는 기도할 때에 내 굴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갓으시리라
 7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5~8)

1.

2.

3

기도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주의해야 할 것은 외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할 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사람이 어떤 기도를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 지에 대한 핵심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을 잘 이해하고 이 기도의 모범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 적용하기 (영상에 표시된 링크에서 수행해주세요.)

1. 천천히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 주기도문에 대해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것들 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3. 매일기도학교에 바라는 점이나 기대하는 점을 적어주세요.

하나님과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마음열기

1. “아버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2.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 때의 기억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3. 만약,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깊이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 내용 들여다보기

예수님께서서는 주기도문을 통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주기도문 기도의 첫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지만, 실제 원어 성경으로 보면 (1)“아버지(아빠)”, (2)“우리”, (3)“하늘에 계신”의 순서로 기도가 시작됩니다.

1. 아버지

1-1.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다.

구약성경 전체, 39권 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칭한 경우는 14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모두 개인이 아닌 민족과 관련되어 사용된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아버지로 불려졌을 뿐,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어디서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른 곳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1-2.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라는 단어의 뜻은 사실 “아빠”에 더 가깝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빠”는 일찍이 예수님이 그의 육체의 아버지 요셉을 향해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아빠”라는 말은 매우 일상적인 말이기 때문에 당시 모든 사람이 사용했습니다. “아빠”라는 말의 뜻은 우리말의 “아빠”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말의 “아빠”보다는 존경의 의미가 약간 더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빠”는 우리말로 “사랑하는 아빠”경도가 적당한 번역일 것입니다.

2. “우리” 아버지

2-1. “우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2-2.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라는 말을 통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치십니까?

3. “하늘에 계신”

3-1. “하늘에 계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장소적 의미입니까?

3-2.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 적용하기 (영상에 표시된 링크에서 수행해주세요.)

1.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천천히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를 떠올리며,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각자의 기도문을 적어보

세요.(p66)

3. 인주일 중 1인을 정해 “매일기도학교 랜선기도회”에 참여해주세요.

하나님 바름 알기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시며)

◆ 마음열기

1. 각자의 이름을 한글과 한자로 적어보고 그 뜻을 적어보세요.

2. 어떤 사람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3.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은 어떤 의미인가요?

◆ 내용 들여다보기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그 이름 뿐 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능력, 성품, 지위가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높임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시며”라는 기도는 ①하나님의 전(全)존재 자체와 ②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사랑과 ③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과 지혜, 그리고 ④창조자로서의 권위가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선포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경배를 믿는 사람들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받아야 마땅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에게 수차례 업신여김을 당해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찾은 하나님의 사자를 그 지역 사람들이 건달하려고 했습니다(창19:5). 바벨탑을 지어 하나님에게 대적합니다(창 11:4). 그리고 이런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악으로부터 돌리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날이 올 때, 떠났던 자식을 다시 찾은 탕자 아버지의 충만한 기쁨이 온 세상과 우리 가슴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안에서 높임과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시며”라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릴지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복합명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합명칭이란, “여호와 이레”와 같은 표현을 의미하고, 이런 복합명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 여호와 마카데수 (레위기 20:8하)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레 20:8하)”

뜻 : -----

성령께서는 믿는 우리를 마음속에 거주하시면서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결해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 자신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 속에 있는 죄의 권세까지도 부수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3.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5:26하, 이사야 53:5)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 15:26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 53:5)”

뜻 : -----

치료는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완성된 사역입니다. 여기서 치료란, 육체적 의미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영적, 도덕적 의미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 자신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정신적 건강뿐 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도 이미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2. 여호와 삼마 (에스겔 48:35)

“그 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삼마라 하리라 (겔 48:35 하)”

뜻 : -----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삶의 지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살아서 성장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엡2:20~22). “임재하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 자신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중한히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서 위로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중보하시며, 교제해 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4.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14)

“이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 22:14)”

뜻 : -----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준비(에비)하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 자신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좋은 곳으로 이끄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양을 준비했듯이, 우리 삶에서도 많은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5. 여호와 닮이시 (출애굽기 17:8-16)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닮이라 하고 (출 17:15)”

뜻 : -----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 자신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고, 그 뿐만큼 용맹한 자가 없으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미 사탄을 완전히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6. 여호와와 같이 (시편 23편)

“1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울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위하시나이이다 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 내 평생에 산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 23편)”

뜻 : -----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우리에게 관면하십니다. 그러므로 “목자 되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 자신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적용하기 (영상에 표시된 링크에서 수행해주세요.)

1.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천천히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라는 기도를 떠올리며, 오늘 배운 내용이 6가지 하나님의 복함명칭을 가지고 각자의 기도문을 적어보십시오. (p66)

3. 일주일 중 1일을 정해 “매일기도학교 랜선기도회”에 참여해주세요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 마음열기

1.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려보세요.

주기도문	강의제목	세부내용
1	기도를 배워 봅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식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2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3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 바로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호와 마카데쉬 여호와 심마 여호와 라바 여호와 아레 여호와 님시 여호와 로이

2.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는 기도문은 어떤 의미인가요?

◆ 내용 들여다보기

1. 아버지의 나라

1-1. 하나님나라의 3대 요소

1-1-1. 나라의 3대 요소는 무엇입니까?

- ①
- ②
- ③

1-1-2. 하나님나라의 3대 요소는 무엇입니까?

- ①
- ②
- ③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3가지 필수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가 영토요, 둘째가 국민이요, 셋째가 가장 중요한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는 기도는 먼저 내 안에 그리고 내 주변에 그리고 내 나라와 온 지구와 우주에, 더 나아가 모든 영적 영토와 영적 대상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또한 그 주권이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간구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 배우게 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오늘 배우고 있는 이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기

2-1. 나의 삶 - 먼저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여,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내가 나의 삶에서 결정을 내릴 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2-2. 나의 주변(가정, 직장, 학교) - 그리고 내 주변 모든 것

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고, 주께서 능하신 팔과 손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고 간구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여,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처럼 나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소고, 학교와 직장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주님께 이 모든 주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모두 다 이루어 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소서. 주의 능하신 팔을 드셔서 역사하여 주소서.

2-3. 나라 전체(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기술, 가정, 교육, 교회) - 위에 기도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주여,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처럼 이 나라의 주인도 되어 주소서. 정치가들과 수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을 용서하시고, 비록 우리의 상황은 비참하고 주를 업신여기나, 하나님께 진실한 믿음과 사랑을 품고 있는 힘없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땅을 버리지 마시고, 구원하시며 주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2-4. 이 세상 모든 나라(국제정치, 국제경제, 인권의 사각지대, 기아, 재난, 전쟁, 폭력) - 위에 기도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 온 땅에 주인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하라고 세우신 이 세상 주권자들이 하나님을 뜻을 따르기보다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서 힘없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세상을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소서.

2-5. 전 우주와 영적 세계(사탄, 마귀) - 위에 기도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모든 우주와 영적 세계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주여, 주님은 하늘위에 하늘에 그 하늘위에 계시며,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모든 악한 영들을 제어하시며, 마귀의 모든 계계를 무너뜨리시고, 이 물질적 세상과 영적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나라라 되게 하소서.

◆ **적용하기** (영상에 표시된 링크에서 수행해주세요.)

1.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천천히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는 기도를 떠올리며,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각자의 기도문을 적어보세요.(p67)

3. 일주일 중 2일을 정해 “매일기도학교 랜선기도회”에 참여해주세요.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기 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 마음열기

1.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고민하며 애쓴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어떤 노력을 얼마나 했습니까?

2.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은 어떤 의미가요?

22

◆ 내용 들여다보기

1.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지는 반면, 이 땅에서는 거꾸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1-1. 하나님의 뜻은 ()에 의해서 거부됩니다. (시편 2:1~4)

“1 아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가 2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의 기를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3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4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
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시 2:1~4)”

- 1-2. 하나님의 뜻은 ()에 의해서 거부됩니다. (다니엘 10:12-14, 고린도후서 11:3)

“12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13 그
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십일 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 주므로 14 이제 내가 마지막 날
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성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시 2:1~4)”

23

2-2.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땅에서도 완벽하게 실현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에는 “하늘에서와 같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완전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본래의 뜻이 끝결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면서 “하늘에서와 같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회의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우리 자신을 개방하는 것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주저하지 않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오고 있고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 **적용하기** (영상에 표시된 링크에서 수행해주세요.)

1.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천천히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떠올리며,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각자의 기도문을 적어보세요.(p67)**

3. **일주일 중 2일을 정해 “매일기도학교 랜선기도회”에 참여해주세요.**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기 ②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 마음열기

1. 지난주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 ①
- ②
- ③
- ④

2.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요?

◆ 내용 들여다보기

1. 뜻이.. (아버지의 뜻)

1-1. 하나님의 뜻은 ① , ②)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① , ②)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먼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총 318가지의 계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시 종교지도자들은 이 살아 있는 하나님의 뜻을 죽여버린 문자로 만들어 율법의 근본정신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문자만 지키는 종교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실수를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겸손, 사랑, 확고한 믿음, 절제, 의롭고 경건한 삶, 하나님의 뜻을 향한 희생과 열정, 그분의 모든 가르침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몸과 마음을 다해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수 1:8)”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마 17:5하)”

1-2. 하나님의 뜻은 () 의 () 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2-1. 예수님은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

1-2-1-(1) 땅의 권세는 모두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요한복음 19:10~11, 로마서 13:1)

"10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11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 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요 19:10~1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골 13:1)"

1-2-1-(2) 예수님은 당시 정치, 사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몰바로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셨다. (누가복음 13:31~32, 22:25)

"31 곧 그 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아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32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사실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눅 13:31~32)"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눅 22:25)"

1-2-1-(3) 예수님의 성전청결은 파렴치한 경제 질서에 대한 저항이었다. (요한복음 2:13~17)

"13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온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14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15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쫓으시며 상을 엮으시고 16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17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요 2:13~17)"

이를 통하여 볼 때 예수님은 정치, 경제, 사회질서에 분명한 관심이 있었으며 강압적인 정치질서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를 연민 하셨고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내적 세계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부분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1-2-2. 사회정의의 틀 이뤄내는 예수님의 방법은 정부전복, 폭력투쟁이 아니라 **원수사랑, 겸손, 인내의 행위를 통해서이다.**

위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면에 관심이 있으셨으며, 기존의 부패한 권력에 대한 저항의식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열심당의 사상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열심당원들과 상당히 다른 방법을 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 18:36절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나라가 이 세상적 질서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방법이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부 전복과 폭력투쟁으로 권세자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폭력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눅 22:25~26에 “세상의 왕들은 강제로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은인행세를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은 제일 낮은 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지배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처럼 해야 한다.” 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회정의의 틀 이루시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강압, 강제, 위강, 거짓, 폭력으로 지배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 사랑, 성기는 정신으로 지배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열심당은 식민지의 악한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혁명을 일으켜 로마 지배 권력자를 죽이고 메시아 왕국을 세울 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주후 66~70년 유대 독립전쟁으로 예루살렘은 멸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믿음과 사랑과 무력 혁명의 길의 종말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2. 이루어지게 하소서

1-1.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이 있어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부응할 의사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로뎃처럼 무조건 맹종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진해서 받아들이기까지 인내와 사랑으로 기다려 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의의, 반항, 거부, 긴장,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되면 전적으로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의 순종은 타의에 의한 부득이한 이끌림이 아닙니다.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그러한 과정에 비록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것은 운명이 아닌 자신이 선택한 길입니다.

1-2.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우리를 ()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당신 혼자 이루시지 않고 언제나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과 더불어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을 기근의 고통에서 구원해 낼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위하여,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부름 받았습니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대신 감당하기 위하여 사도바울은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

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시다. 이렇듯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크고 작은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를 드린다면, 이 기도가 영리한 체념이나 종교적인 굴복과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기도에서 강조되는 것은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소명입니다.

→ 우리는 무엇을 영리한 체념이나 종교적인 굴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 **적용하기** (영상에 표시된 링크에서 수행해주세요.)

1.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천천히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떠올리며,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각자의 기도문을 적어보세요.(p68)**

3. **일주일 중 2일을 정해 “매일기도학교 랜선기도회”에 참여해주세요.**

하나님을 나의 삶에 초청하라

(오늘 우리에게 인용한 양식을 주시고)

◆ 마음열기

1.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려보세요.

	주기도문	강의내용	중심내용
1		기도를 배워 봅시다	✓ 잘못된 기도, 올바른 기도
2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 하나님과 나의 관계
3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 바로 알기	✓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 ✓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선포
4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기	✓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나라)에 대한 정확한 지식
5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기	✓ 하나님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
6	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①, ②	

2.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인용한 양식을 주시

고”라는 기도문은 어떤 의미인가요?

◆ 내용 들여다보기

“오늘 우리에게 인용한 양식을 주시고”라는 간구에서 “인용한 양식”이란 당장 먹고 마실 끼니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면서 꼭 필요한 육적, 영적인 모든 것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 하나님은 나의 ()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마태복음 6:25~34)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 26 공중의 새를 보라 짐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니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라 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걸썩도 아니하느니라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듕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나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 까 하지 말라 32 이는 다 아버지가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마 6:25~34)”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없거나, 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말로 다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며,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느낍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크고 놀라운 하나님께 이 세상을 향한 뜻과 비전을 위한 기도(“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를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우리의 삶으로 기도의 초점을 옮기십니다.

이 기도문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필요는 너무 상반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 초점의 이동이 너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뜻과 비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의 필요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은 ()과 ()을 의미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오는 필요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욕심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약

38

1:14~15, 약 4:2~3). 욕심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갈구하는 것이 욕심인지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는 스스로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필요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합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과 믿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막 11:24)

“14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약 1:14~15)”

“2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응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약 4:2~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막 11:24)”

3.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기도를 올바로, 효율적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3-1. 내가 먼저 ()의 ()안에 있어야 합니다.

39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주 작은 필요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 강조의 마지막 결론을 맺으시면서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과 먼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오를 기도문(오를 우리에게 인용한 양식을 추시고) 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과 욕망으로 눈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감관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고 여자를 빼앗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이 욕심과 욕망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논를 물리칠 때 또 기뻐하실 때 우리는 그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고 균형 잡힌 ()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손으로 일하여 생 활비를 벌어야 하고 아무것도 꾀질한 것이 없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산전 4:1, 산후 3:1~12) 하나님께서는 그늘에 편안히 앉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계으로 사람들 에게 먹고 입을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노력하고 힘써서 일해야 하며 이러한 성실함 가운데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산전 4:11)"

"11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 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12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산후 3:11~12)"

3-2. 내가 ()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3서 1:2-3)

"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될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3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요한3서 1:2-3)"

"잘 되는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한3서 1장 2~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요한은 영혼이 잘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 행하는 삶"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행하는 삶"은 단언히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영혼이 잘 되는 것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범사에서도 잘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합니다. 그러습니 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다 잘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물려드리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우 리를 향한 사랑과 축복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잘되기를 바라는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단대히 그리고 신뢰함으로 아뢰어 드려야 합니다.

3-3.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시고, 반드시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9-10, 18:1-8)

9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0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눅 11:9~10)

1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2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3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4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6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7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눅 18:1~8)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부는 몇 번이고 계속 그 재판관에게 찾아가서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졸라댔습니다. 그 여인의 끈질김 때문에 그 불의한 재판관은 그녀의 요청을 들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인내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이 다디 온다 할지라도 꾸준히 인내

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그 순간에 이미 응답은 내려진 것입니다(단 10:12~14). 만약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거나 마음속으로 간구를 계속해야 합니다.

어떤 영어성경은 누가복음 11장 9~10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계속해서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라고 말씀 하셨습니다(눅 18:1). 하나님은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내리는 분이십니다(히 11:6).

12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13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십일 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기엘이 와서 나를 도와 주므로 14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단 10:12~14)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 11:6)"

◆ 적용하기 (영상에 표시된 링크에서 수행해주세요.)

1.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천천히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기도를 떠올리며,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각자의 기도문을 적어보세요.(p68)
3. 일주일 중 3일을 정해 “매일기도학교 랜선기도회”에 참여해주세요.

마음의 선행리로부터 자유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 마음열기

1.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까?
2. 당신이 하나님이나 당신이께 진노하신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3. 당신이 용서해야 하는 사람이나 정리해야 하는 과거는 무엇입니까?

◆ 내용 들여다보기

1.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1-1.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인가?

1-1-1. 십계명을 어기는 것

①	⑥
②	⑦
③	⑧
④	⑨
⑤	⑩

1-1-2. 이방인의 죄 (로마서 1:20-23, 29-31)

1-1-3. 유대인의 죄 (로마서 2:3, 21-24)

1-1-4. 마음의 죄 (누가복음 8:11-15)

1-1-5.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마태복음 5:27-30)

결론 : -----

1-2. 죄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1-2-1.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

1-2-2. 먼저 스스로를 용서하라.

1-2-3.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1-2-4. “나는 죄로부터 온전할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지마라.

2.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2-1. 용서(of people) vs 용서(of God)

우리는 살다보면 상처를 받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여러 번 이런 일들을 겪는다 해도 웬만한 일들은 잊어버리고 살거나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마음이 풀리고 용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저히 헤쳐는 안 될 말들과 행동을 하며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2-1-1.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습니까?

이런 상처는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벼운 감기는 특별히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낫지만, 감염이나 심한 독감은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쉽게 자절로 낫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는 가르치십니다.

2-1-2.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는 기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ex) 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한 만큼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
 ②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우리를 용서하신다.
 ③

2-2. 십자가의 의미

2-2-1. 십자가는 하나님의 ()을 상징한다.

(마태복음 27:46)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27:46)”

2-2-2. 십자가는 하나님의 ()를 상징합니다.

(신명기 21:23하)

* ...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신 21:23하)*

2-2-3.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와 ()를 기

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23-35, 로마서 5:8)

23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신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이 24 결신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5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26 그 종이 앞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27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불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29 그 동료가 앞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30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31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32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4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 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 18:23-35)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롬 5:8하)

3. 우리가 우리에게서 잘못된 사랑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3-1.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그 상처에 짐식당한다.

(마태복음 13:7)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마 13:7)

용서는 남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받은 상처를 쉽게 떨쳐내기 힘들어진다 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마음에 생긴 상처를 계속해서 양육하게 되고 그 상처를 나의 가장 친한 친구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며,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3-2. 용서는 악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다.

(로마서 12:19-21)

19 내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롬 12:19~21)

3-3.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 수 없게 된다.

(로마서 2:14-15)

14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롬 2:14~15)

◆ **적용하기** (영사에 표시된 링크에서 수행해주세요.)

1.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천천히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는 기도를 떠올리며,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각자의 기도문을 적어보세요.(p69)**

3. **일주일 중 3일을 정해 “매일기도학교 랜선기도회”에 참여해주세요.**

주요! 우리를 보호하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십시오)

◆ 마음열기

1. 지금까지 사면서 당신의 삶에 닥친 가장 큰 시련은 무엇입니까?

2. 당신의 신앙생활을 불안하게 만들고, 나의 삶을 흔들리게 만드는 당신의 가장 큰 악적은 무엇입니까?

ex) 교만, 열등감, 물질욕, 명예욕, 두려움, 자기 합리화

◆ 내용 들여다보기

1.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십시오

★ 고난(suffering)과 유혹(temptation)

성경에 자주 쓰이는 용어인 "시험"이라는 단어는 보통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됩니다. 첫째는 고난이고, 둘째는 유혹입니다.

첫 번째 의미인 고난은 우리 삶에 닥치는 어려운 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신화화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훈련(Training)'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시험의 본뜻인 '고난'을 다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어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이 몹시 온전히 고려하지 못합니다.

"시험"의 둘째 의미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가 사탄으로부터 오는 유혹이고 둘째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받는 유혹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십시오"라는 기도는 고난에 대한 대처와 유혹에 대한 대처, 모두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는 고난에 대한 대처를 "악에서 구하십시오"는 유혹에 대한 대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2-1.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시편 91:2)

“2 나는 여호와의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 91:2)”

하나님의 보호는 예방적 보호와 사후적 보호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 신앙의 모양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째가 힘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지만,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예방하도록 돕지 않는 것에 대해 실망하는 모양입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일이 발생하기 전에는 전혀 기도하지 않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갑자기 기도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모양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2-2. 우리 삶의 전체의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시편 1:1-6)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니 4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버림에 나는 겨와 같도다 5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니 6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니 (시 1:1-6)”

→ ‘악인’과 ‘복 있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2-3. 항상 나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욥기 1:4-5)

“4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미시더라 5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경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 1:4-5)”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기도할 때마다 나 자신, 나의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모든 소유와 일들을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어야 하는 전제를 충족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3. 악에서 구하소서

3-1. 우리는 너무 쉽게 악인의 길에 접어들었다.

(시편 139:23)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시 139:23)”

우리의 마음 안에는 우리도 잘 모르는 악점들과 욕심들 욕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다 아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잠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기자는 139편 23절에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셔서 내 생각을 아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시험하셔서 내 생각을 아옵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은 이미 나의 마음을 다 아시지만 이를 밝혀 드러내 달라는 간구입니다. 시편기자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에 몰두했는지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을 알기위해 기도하며 두루 살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먼저 잘 살펴 줄 알아야 나의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살필 수 있게 됩니다.

3-2. 우리의 생각은 아둔하여 선과 악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5:14)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식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 5:14)”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 삶속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의 처해 있는 상황과 나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역지사지), 상식적으로 다시 한 번 판단해 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항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알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3-3. 순결하라! 정결하라! (시편 51:10)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 51:10)”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깨끗한 마음이 없고, 정직한 영은 항상 더럽혀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깨끗한 마음을 주옵소서, 행위의 죄, 마음의 죄들을 짓지 않게 하옵소서, 지어도도 빨리 돌아와 회개하게 하옵소서, 복 죄를 짓고 걸길로 가더라도, 스스로를 합리화하거나 스스로 거짓말하지 않도록 정직한 영을 언제나 새롭게 하옵소서.”

◆ 적용하기 (영사에 표시된 링크에서 수행해주세요.)

1.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천천히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를 떠올리며,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각자의 기도문을 적어보세요.(p69)
3. 일주일 중 4일을 정해 “매일기도학교 랜선기도회”에 참여해주세요요.

40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 마음열기

1. 지금까지 배웠던 기도를 하나씩 앞에 드리며 경험하거나 느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 주기도문에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기도문은 어떤 의미인가요?

61

◆ 내용 들여다보기

지금까지 배운 주기도문 성경공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기도문	강의제목	배운 내용
1	기도를 배워 봅시다!	*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올려드릴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2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기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내에게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합니다.
3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 하나님이 어떤 분이 지 다시 생각 합니다.
4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 나의 삶과 나의 주변, 그리고 이 나라, 세계, 모든 영적 세계가 누구의 주권 안에 있는 지 확인합니다.
5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7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 이제 나의 필요에 대해 간구합니다. 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뜻에 합당한 지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8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 나를 붙잡고 있는 상처로부터 마음과 시기가 많은 나쁜 마음들로부터 자유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9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시험받을 때나 유혹받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10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 기도를 마치면서,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나라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권능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올려드리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기도를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로 끝내도록 가르칩니다. 이 기도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마칠 때까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지금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아뢰었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이 **고백**으로 **미문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기도는 어떤 의미인지 알아봅시다.

1.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고백 :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강자 못 저 하늘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것입니다.

기도의 마무리 : 지금까지 드린 이 기도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저 하늘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기도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비전과 뜻에 배치되거나 위배되지 않아야 함을 고백하며 확인합니다.

2. 권능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고백 :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권세와 능력의 소유자 되십니다.

기도의 마무리 :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역사하실 권능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수 없고, 허무하고 무력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3.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고백 : 존재하는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기도의 마무리 :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나타낼 영광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직 주 만(나 말고..) 영광을 받으소서.

◆ 적용하기 (영상에 표시된 링크에서 수행해주세요.)

1.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천천히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기도를 떠올리며,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각자의 기도문을 적어보세요.(P70)

3. 일주일 중 4일을 정해 “매일기도학교 랜선기도회”에 참여해주세요.

2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문 쓰기

Blank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text.

3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기도문 쓰기

Blank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text.

4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기도문 쓰기

Blank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text.

5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문 쓰기

Blank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text.

1. 노래 금조기나 “사자우
 단 사계양은 ‘고시우 배업 고지저배 사어우사용 들리호,, 제8

1. 노래 금조기나 “고시호 사어우사용 들리호,, 제8
 고 사어우사용 들리호,, 제8

1. 노래 금조기나 “고시호 들리호,, 제8

1. 노래 금조기나 “사자우 사어우
 고 사어우사용 들리호,, 제8

10과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나
다” 기도문 쓰기

Blank lined writing area for the prayer text on page 144.

70

memo

Blank lined writing area for the memo on page 145.

71

Dreamer

Catcher

Witness

Change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Sukhyun Bae

Place and Date of Birth: Seoul, South Korea, Jul. 07, 1979

Parent's Names: Yechun Bae and Jumsoo Kim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Whimoon High School 541 Yeoksam-ro, Gangnam-gu, Seoul (Daechi-dong)	Diploma	Feb 16, 1998
egiate: Hanyang University, Erica Campus 55, Hanyangdaehak-ro, Sangnok-gu, Ansa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B. A.	Feb 10, 2003
Graduate: Pre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25-1 Gwangjang-ro 5-gil, Gwangjin-gu, Seoul, Republic of Korea	M. Div	Feb 9, 2012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Sukhyun Bae

Name typed

February 15. 2024

date